

# 고려시대 魚子文 금속공예품 연구

임지윤\*

- I. 머리말
- II. 魚子文기법의 기원과 전개
- III. 고려시대 魚子文 금속공예품의 유행과 발전
- IV. 맺음말

## I. 머리말

魚子文技法은 강철제 釘을 사용하여 금속표면을 장식하는 彫金技法의 하나로, 끝부분이 둥글게 움푹 파인 정(도 1)을 망치로 두드려 작은 圓文을 찍는 금속공예기법이다. 이 정을 우리나라 전통 장인들은 흔히 누갈정 또는 방울정이라 불렀으며<sup>1</sup>, 한 손에는 누갈정을 금속표면과 직각에 가까운 각도로 세워 잡고, 다른 한 손은 망치로 정을 두드려서 음각 원문을 나타낸다(도 1-1). 시문된 원문의 형태는 정 의 크기나 망치질의 세기, 금속의 재질과 두께 등에 따라 차이가 생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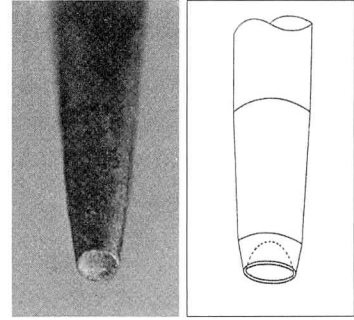
\* 국립고궁박물관 학예연구사

<sup>1</sup> 李蘭映, 「魚子文技法」, 『震檀學報』 71·72(1991), p. 1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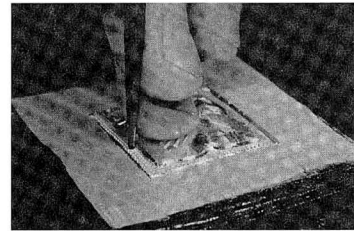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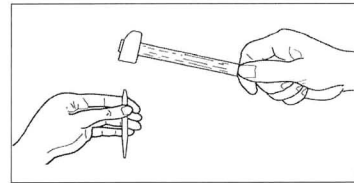
어자문기법은 고대 이집트와 서아시아 등에서부터 문양의 일부로 장식되다가, 중국 唐代 금은기에 문양을 돋보이게 해주는 바탕 장식[地文]으로 응용되면서 동아시아에서 크게 성행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에 등장하기 시작하여 통일신라시대에 본격적인 바탕 장식으로 정착되었고, 고려시대에 入絲·打出기법 등과 함께 수준 높은 기술을 보여주며 전성기에 달하였다. 통일신라의 전통기술을 기반으로 11세기에서 12세기에 宋, 특히 遼와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 발전한 어자문기법은, 동시기에 유행한 여러 금속공예기법과 결합되어 그 어느 시기보다 정교하고 다양하게 장식되었다.

어자문기법에 관해서는 唐代 금은기를 위주로 간략하게 소개되어 왔으며,<sup>2</sup> 보다 진전된 연구가 일본 奈良時代(710-794) 금속공예품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sup>3</sup> 이후 국내에서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 금속공예품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발표된 바 있다.<sup>4</sup> 그러나 우리나라 어자문기법의 발전배경과 통일신라시대 이후에 유행한 고려시대 어자문 금속공예품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아, 이 글에서 다루어보고자 한다.

먼저 어자문기법의 기원과 용어에 대해 짚어보고, 중국에 전래된 어자문기법이 당대 이후에 송·요를 거쳐 성행한 과정을 알아보겠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 유입되어 발전한 어자문기법의 전개를 살펴보고,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고려시대 어자문 금속공예품의 우수성과 독자성을 밝혀 그 위



도 1 현대 누갈정의 끝부분과 그 단면도



도 1-1 (上) 망치와 정을 쥐는 자세,  
(下) 누갈정으로 여백을 장식하는 모습

<sup>2</sup> Gyllensvärd, Bo, "T'ang gold and silver", *The Museum of Far Eastern Antiquities Bulletin* No. 29(1957), pp. 34-36; 江上 綏, 「魚子地-東亞文様・意匠の源流と展開 9-」, 『日本美術工芸』420(1973. 9), pp. 88-92; 東野治之, 「魚子打ちの技術」, 『正倉院』(岩波書店, 1992), pp. 74-78.

<sup>3</sup> 中野政樹, 「日本の魚々子—受容と展開」, 『Museum』393(1982. 12), pp. 4-16.

中野政樹는 중국, 한국과 일본 魚子文기법의 나라별 시문 솜씨를 질서정연하고 빈틈없는 唐의 솜씨와 고르지 않고 드문드문한 통일신라·奈良의 솜씨,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여 기법의 차이를 지적하였다. 그러나 각 공예품을 살펴봤을 때 기법 자체의 숙련도에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나라별로 양분하여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sup>4</sup> 李蘭映, 앞의 논문, pp. 187-209.

상을 새롭게 조명해보고자 한다.

## Ⅱ. 魚子文기법의 기원과 전개

### 1. 기원과 용어

어자문기법이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이집트 新王國시대 제 18왕조(BC 1539-1292)의 투탕카문왕(在位 BC 1333-1323?) 묘에서 출토된 <木製金貼小彫廚子>에 장식된 예 등을 통해 기원전 14세기경까지 거슬러 올라감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고대 서아시아와 중앙아시아 등에서 출토된 몇몇 유물들을 토대로 문양의 일부를 어자문기법으로 장식한 초기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sup>5</sup> 기원후 어자문기법은 은공예 산업이 발달한 사산조 페르시아(226-651)에서 강력한 왕권을 상징하거나 귀족의 연회문화를 나타내는 銀器에 즐겨 장식되었으며, 주로

인물의 의복과 장신구(도 2, 2-1), 혹은 동물의 털 등을 표현하는 데 이용되었다.

한편 중국에서 어자문기법은 漢代(BC 206-AD 220)부터 보이기 시작하는데, 동물 형상으로 조각한 金·銀印章의 손잡이[紐](도 3)나 器物에 부착한 금동제다리 등에서 동물 몸체의 반점 장식으로 시문되었다.<sup>6</sup> 불교가 확산된 南北朝時代(420-589)에 들어와 어자문기법은 金銅



도 2 <銀製鍍金壺>, 사산조 페르시아, 5세기, 高 18.4cm, 미국 클리브랜드미술관



도 2-1 女人像 세부

<sup>5</sup> 拙稿, 「高麗時代 魚子文工藝品 研究」(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7), pp. 11-14 참조.

<sup>6</sup> 어자문기법이 중국으로 전래된 경로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최근 기원전후한 시기의 匈奴 고분에서 출토된 두 점의 <은제도금용문장식판>에서 용 몸체의 반점문양이 어자문기법으로 표현된 사실이 조사되었다(주경미, 「몽골 출토 흉노시대 금속공예품 연구」, 『新羅文化』 37[2011.2], pp. 211-212). 이에 어자문기법은 중앙아시아의 유목민족을 매개로 한 오아시스路뿐 아니라, 흉노와 같은 북방 유목민족을 통한 草原路 등을 거쳐 漢으로 전파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佛·菩薩像의 寶冠·光背·瓔珞 등에 연주문 형태로 적용되었고, 특히 사산조 페르시아와 활발한 교류를 주고받았던 북위시대에 많은 예들을 볼 수 있다. 즉, 이 시기까지의 어자문기법은 금속기의 제한적인 부분 장식으로 활용되었다.

‘魚子’라는 용어는 금속기물의 표면에 작은 원문을 수없이 늘어놓은 모습이 마치 물고기 알처럼 보인다고 하여 붙여진 명칭이다. 지금까지 이 명칭이 확인되는 유일한 문헌자료는 일본 正倉院에 소장된 문서로, 이 중 「造法華寺金堂所解(天平寶字 4년, 760)에는 阿彌陀淨土院金堂을 조영하는 데 고용된 銅工 중 ‘魚子打工’이 포함되어 있다.<sup>7</sup> 따라서 당시 일본에서 魚子라 불리는 기법을 전문적으로 시문하는 장인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중국에서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전래된 어자문기법의 명칭을 역으로 추정해볼 수 있으며, 명칭은 중국이나 한국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에서는 魚子와 함께 魚魚子, 七子, 斜子, 魴子 등 모두 나나코(ななこ)라는 발음으로 불리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魚子를 기본으로 魚子地, 魚子底 또는 魚子紋 등이라고 일컫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魚子文과 더불어 圓圈文, 圓文, 打圈文, 連珠文 등 여러 명칭이 혼용되어 왔다.<sup>8</sup> 현재 ‘魚子’라는 용어는 正倉院文書의 기록을 토대로 중국·한국·일본 학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이미 금속공예품의 장식에 고유명사처럼 정착되어 쓰이고 있는 ‘魚子文’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다.<sup>9</sup>



도 3 <廣陵王璽> 銘 金製印, 후한 전기, 67년경, 江蘇省 江縣甘泉鎮 2호 漢墓 출토, 印面 2.3×2.3cm, 南京博物院

<sup>7</sup> 正倉院文書, 「造法華寺金堂所解」, “卅五貫六百六十文 銅物一万三千七百卅三物作工一千二百六十二人半功 一十二貫四百五十文 火作工二百卅九人功 人別五十文 廿貫七百元 眞作工五百七十七人半功 人別卅文 四貫四百卅六文… 堺打工九十四人功 人別卅文 三貫百廿文… 魚子打工卅人功 人別卅文” 中野政樹, 앞의 글(1982. 12), p. 13 재인용.

<sup>8</sup> 이난영, 『한국 고대의 금속공예』(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p. 95. 한편 魚卵文이라고 칭하거나(한정호, 「益山 王宮理 五層石塔 舍利莊嚴具의 編年 再檢討: 金製舍利內盒을 중심으로」, 『불교미술사학』 3[2005]), 한글로 풀어서 구슬문이란 명칭이 사용되기도 하였다(『국립중앙박물관 전시용어: 미술사』[국립중앙박물관, 2006]).

<sup>9</sup> 현재 ‘魚子文’은 누깁정을 사용하는 금속공예기법이자 이 기법을 통해 표현되는 문양이 동시에 내포되어 칭해지고 있어, 문양과 기법적인 측면에서의 용어 구별에 혼란스러운 점이 있다. 이는 어자문기법으로 새로운 문양이나 형태를 만들어내기 보다는, 단순한 원문 그 자체로만 장식하는 경우가 많아 문양이 곧 기법과 동일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기법과 문양으로서의 언급에 있어 각각 ‘어자문기법’과 ‘어자문’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부분 장식으로서 시문된 경우 또한, 바탕 장식으로서 성행하기 이전의 선구적인 단계에 해당하므로 모두 포함하여 어자문기법으로 통칭하겠다. 적절한 용어의 정립에 관해서는 학계의 공론화와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 2. 중국 어자문기법의 성행과 한국으로의 유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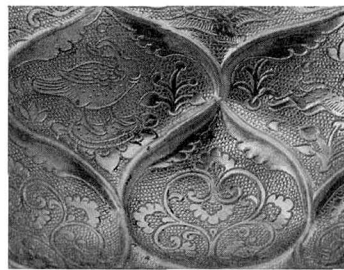
### 1) 중국 어자문기법의 성행

금속표면에 주제문양을 새긴 후 여백을 어자문기법으로 뾰뾰하게 메우기 시작한 것은 隋代 혹은 唐初인 7세기로 추정된다.<sup>10</sup> 唐初에는 동로마, 사산조 페르시아와 소그드의 영향을 받은 高足杯, 多曲長杯, 多瓣碗(도 4), 帶把杯 등의 외래기형이 많은 양을 차지하는데, 복잡하고 세밀하게 묘사된 식물문, 질서정연하고 빈틈없이 시문된 어자문에서 중국화를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도 4-1). 금은기의 제작이 전례 없이 번영한 唐代에 어자문기법은 음각된 원문의凹凸에 따라 장식효과를 내는 금은기의 바탕 장식으로 성행하였다. 즉, 어자문이 찍힌 바탕 부위는 얇은 요철이 생겨 울퉁불퉁한 반면, 주제문양 부위는 매끄럽게 연마한 금속표면이 그대로 남게 된다. 각 부위 간에는 빛의 반사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바탕은 어둡고 문양은 밝게 보이게 되어, 주제문양을 훨씬 입체적이고 돋보이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

8세기 중반 이전인 당대전기까지 금은기 생산은 長安과 洛陽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황실공방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어자문기법은 日常器皿, 化粧用具, 裝身具 등의 일상공예품과 舍利莊嚴具, 佛像 등을 포함한 불교공예품 등에 다양하게 장식되었으며,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균일하게 시문된 작품들이 많이 남아있어 당대 전기에 가장 뛰어난 수준을 보인다. 그러나 安祿山の亂(755-763) 이후 금은기의 주요한 제작지가 南方지역의 지방정부와 민간공방으로 이동하고, 금은기의 대량생산에 따른 품질의 저하현상이 나타나면서 제작기법과 문양표현 등도



도 4 〈金製禽獸蓮瓣文盃〉, 陝西省 西安市 何家村 窖藏  
출토, 高 5.6cm, 口徑 13.5cm, 陝西省 歷史博物館



도 4-1 몸체 세부

<sup>10</sup> 百橋明穗·中野徹主編, 『世界美術大全集』 東洋編 4 隋·唐(小學館, 1997), pp. 290-291.

조잡해져 갔다. 어자문은 얇아진 器胎로 인해 정을 치는 세기가 약해져, 밀도 있게 이어지지 않고 가늘게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은 唐末을 걸쳐 宋代(960-1279)에 이르러서도 지속되었다. 송대에는 원료의 부족으로 인해 금속기 사용이 대폭 감소하였으며, 이는 도자기의 발달과 칠기 유행의 원인이 되었다. 송대 금은기에 어자문기법은 큰 발전을 이루지 못하였으나, 대신 가늘고 뾰족한



도 5 <白釉虎文瓶>, 북송, 10세기 말~11세기 초, 磁州窯, 高 32.1cm, 底徑 9.9cm, 北京 古宮博物院



도 6 <金製立鹿文鷄冠壺>, 요대전기, 全高 15cm, 중국 개인 소장

정도로 도톨도톨하고 깨알 같은 點文(小碎點文)을 채워 넣어 한층 간편하게 시문하고자 하였다. 상류층이 소유한 금은기에 제한적으로 장식되었던 어자문기법은 중국 북부 일대에서 민중의 수요에 의해 제작된 北宋代(960-1126) 磁州窯系 磁器에 모방되어 널리 보급되었다(도 5).<sup>11)</sup> 자주요계 자기는 철광석 彩料를 입힌 문양과 백색 化粧土간에 강렬한 색채대비를 이루어, 어자문기법이 자기 재질의 특성에 맞게 응용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상이었다고 여겨진다.<sup>12)</sup> 중

11 어자문기법이 자기에 모방되기 시작한 시점은 대체로 10세기 후반 경으로 인정되고 있다. 長谷部樂爾, 「磁州窯·河南天目」, 『世界陶磁全集』 12 宋(小學館, 1977), pp. 232-233.; Mino, Yutaka, "Tz'u-chou-Type Ware Decorated with Incised Patterns on a Stamped 'Fish-Roe Ground'", *Archives of Asian Art* Vol. 32(1979), p. 55.

12 구체적인 시문과정은 周軍·劉彥鋒, 「珍珠地劃花淺析」, 『考古』 1995年 第6期, p. 564; 秦大樹, 김영미 역, 「宋·金代 북방지역 瓷器의 象嵌工藝와 高麗 象嵌靑瓷의 관계」, 『美術史論壇』 7(1998), pp. 58-60 참조.

13 韓光輝, 「遼代中國北方人口的遷移及其社會影響」, 『北方文物』 1989年 第2期, pp. 72-79.

금은제련업에 종사한 자들은 포로로 잡혀온 漢族 위주였으며 일부 渤海族과 契丹族이 참여하였다. 납치된 한족 장인들은 요 왕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宮衛와 國有工場과 같은 官營作坊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었다(朱天舒, 『遼代金銀器』 [北京: 文物出版社, 1998], pp. 75-78).

국에서는 이와 같은 자기를 진주가 쌓인 것 같다고 하여 ‘珍珠地劃花磁器’라고도 칭하며, 珍珠文은 주문양을 더욱 선명하고 부각되어 보이게 하므로 비교적 오랫동안 유행하였다.

唐代 금은기의 기형·문양·제작기법 등 각 방면의 공예기술은 遼(907-1125)를 세운 契丹族에게 그대로 계승되었다. 요는 936년에 後晉(936-946)으로부터 지금의 河北省과 山西省 북부에 해당하는 燕雲 16州를 할양받아 그 곳에 거주하던 수많은 漢族 匠人들을 잡아갔으며, 이로 인해 金銀器·磁器·紡織 등의 수공업 생산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sup>13</sup> 遼代는 북방지역 금은기의 제작이 최성기에 도달한 시기로, 어자문기법은 송대보다도 요대 금은기에서 제 2의 전성기를 이루었다. 耶律羽之(836-941)와 그의 부인 蕭重袞(?-942)과의 合葬墓, 贈衛國王駙馬墓(959), 陳國公主駙馬 合葬墓(1018) 등 요대전기 귀족묘에서 출토된 장신구·장례용구·마구 등을 비롯하여, 景宗의 황후인 蕭氏 承天太后(953-1009)와 요의 功臣인 文忠王(耶律隆運, 941-1011)을 위해 바쳐진 祭器 등을 통해 화려하고 정교하게 장식된 어자문기법을 볼 수 있다.<sup>14</sup> 요대에 어자문기법은 균일하고 평행하게 시문된 당의 치밀한 수법에는 미치지 못하였지만, 유목민인 거란족의 민족성이 담긴 전통적인 기물 등에 적용되어 장식범위를 훨씬 다양하게 넓혀 갔다(도 6).

## 2) 한국으로의 유입

우리나라에서 어자문기법은 문양의 일부, 혹은 테두리를 장식하는 연주문의 형태로 三國時代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삼국시대의 각 유적에서 출토된 帶具 장식 중에는 三葉文의 안팎을 등성등성 시문한 예가 남아있다. 출토품들은 주로 晋代(265-420)에 크게 유행했다고 하여 ‘晋式帶具’라고 불리는 帶具 장식의 일종으로, 중국 제품을 복제하였거나 중국에서 수입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sup>15</sup> 6세기를 중심으로 제작된 環頭大刀의 손잡이 장식[賁金具]에서는 테두리를 돌아가며 어자문기법으로 연주문 형태를 시문한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또한 삼국시대에 불교가 유입되고 金銅佛·菩薩像이 활발히 만들어지면서, 금동불의 광배·보관·영락·대좌 등

<sup>14</sup> 拙稿, 앞의 논문, pp. 56-6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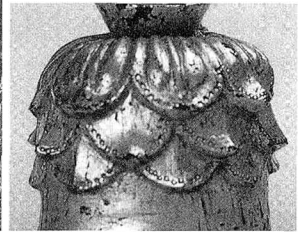
<sup>15</sup> 山城下 152號 고구려묘에서 출토된 <金銅製帶環>, 서울 몽촌토성에서 발견된 <金銅製帶銜板>과 경상북도 榮州 지방에서 발견되었다고 전해지는 두 점의 <金銅製環形垂飾>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몽촌토성 출토 金銅銜帶金具는 東晋代인 320-330년경에 사용된 황제·황족 등 고위신분의 과대 부속품으로 추정되고 있다(박순발, 『漢城期百濟對中交涉一例-夢村土城出土 金銅銜帶金具 追考-』, 『湖西考古學』 11[2004], pp. 5-15).



도 7 <癸未年銘 金銅製三尊佛>, 563년, 高 17.5cm, 간송미술관, 국보 7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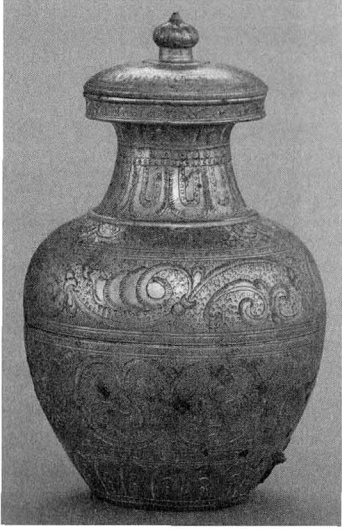
도 7-1 광배 및 대좌의 세부



의 테두리 장식에 한층 진전된 형태로 표현되었다(도 7, 도 7-1). 이는 이미 어자문기법이 금동불을 장엄하는 장식으로 애용된 南北朝와의 빈번한 교섭을 통해 발전한 것으로 생각된다. 어자문기법은 중국에서 전래된 특수하고 새로운 기법의 하나로서, 삼국시대에 帶具나 環頭大刀 등과 같이 지배계층의 권위를 상징하는 고급 위세품에 부분 장식으로 시문되다가, 이후 금동불의 장식으로 퍼졌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삼국을 통해 일본에도 전해져 7세기 후반 이후 白鳳時代(650-710) 금동불·보살상에 널리 적용되었다.<sup>16</sup>

어자문기법이 금속공예품의 바탕 장식으로 사용된 시기는 彌勒寺址西石塔 출토 <金銅

<sup>16</sup> 일본 東京國立博物館에 소장된 法隆寺獻納寶物 금동불·보살상 중에는 어자문기법으로 시문한 작품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와 함께 두 개의 점이 쌍으로 한 번에 나란히 찍히는, 소위 複連點文[雙點文]이라 불리는 기법이 사용되고 있어 주목된다. 어자문기법은 대개 영락과 보관 등에, 복련점문기법은 天衣·褶의 테두리나 주름 표현, 대좌와 연판문의 테두리 장식 등에 연주문 형태로 장식되었다. 이 두 기법은 7세기 후반, 특정한 시기에 병용되었고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제시된 바 있다(中野政樹, 앞의 논문, pp. 5-7; 加島勝, 「武寧王陵金工品과 法隆寺獻納寶物」, 『武寧王陵과 東亞細亞文化』,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국립공주박물관, 2001]). 우리나라에서 복련점문기법은 이미 무령왕릉 출토 <銅托銀蓋>에서 나타난다. 복련점문기법은 연주문의 모티프와는 별개이나 어자문기법의 유형 중 연주문을 나타내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노려, 테두리 장식에 또 다른 변형으로 애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최용천, 「武寧王陵金工品과 法隆寺獻納寶物에 관련된 討論」, p. 229 참조)



도 8 (左)〈金銅製舍利外壺〉와 (右)〈金製舍利內壺〉, 639년, 高 13cm, 高 5.6cm, 익산 미륵사지 서석탑 출토, 국립문화재연구소



도 9 〈金銅製舍利內函〉, 682년, 感恩寺址東3층석탑 출토, 高 16.5cm, 국립중앙박물관, 보물 1359호

製舍利內·外壺(도 8)와 王宮里5층석탑 출토 〈金製方形舍利內函〉을 통해, 현재 7세기 전반 경으로 밝혀졌다.<sup>17</sup> 이들舍利器에는 三葉文을 비롯한 花瓣과 花紋 등 서로 매우 유사한 문양이 새겨져 있어 깊은 연관성을 보인다. 어자문은 여백을 메우는 흥내만 났다고 할 정도로 성기고 크기도 일정하지 않아 바탕 장식으로 정착되어 가는 초기 과정을 보여준다.



도 9-1 기단 세부

당의 선진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統一新羅時代에 어자문기법은 왕실의 주도 하에 제작된 불교공예품과 裝飾具 등에 본격적으로 채택되었다. 7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경주를 중심으로 제작된 여러 점의 사리장엄구에서 숙련된 시문솜씨가 확인된다. 그 중 感恩寺址東西3층석탑에서 발견된 〈金銅製舍利內·外函〉(도 9)은 당시 가장 뛰어난 수준의 금속공예기

<sup>17</sup> 王宮里5층석탑 출토 〈金製方形舍利內函〉의 제작시기는 문양분석을 통해 백제 武王의 昇遐를 전후한 7세기 전반 경으로, 5층석탑의 건립시기는 650년을 전후한 시기로 추정된 바 있다(한정호, 앞의 논문[2005]; \_\_\_\_\_,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과 사리장엄구 연구』, 『익산 미륵사지 출토유물에 대한 종합적 검토: 신라사학회·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 요지문』[2009.3])

법을 엿볼 수 있는 작품으로, 곳곳에 질서정연한 어자문을 시문하였다(도 9-1). 삼성미술관에 소장된 한 쌍의 <金銅製水晶象嵌燭臺>(도 10)는 불단 위에 올려놓는 공양구로 추정되며, 초꽃이와 받침접시 등에 花文을 화려하게 묘사하고 여백을 촘촘한 어자문기법으로 장식하였다(도 10-1). 또한, 금동불의 육계와 나발을 어자문기법으로 손쉽게 표현하여 일일이 주조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기도 하였다.<sup>18</sup> 雁鴨池에서 출토된 <金銅製초심지가위>나 <金銅製벽걸이裝飾具>등과 같은 일상공예품에서도 唐草文 사이를 뺄뺄하게 메우고 있는 어자문을 볼 수 있다. 그에 반해 궁궐이나 사찰에서 출토된 일상기명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는데, 통일신라시대에 어자문기법은 극히 한정된 불교공예품과 장식구를 중심으로 정착되어나갔다고 파악된다. 통일신라 말로 들어서면 金銀사용이 국가적으로 규제되고 전반적인 공예장식이 억제되는 경향을 보이는데,<sup>19</sup> 어자문기법 역시 이에 따른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도 10 <金銅製水晶象嵌燭臺>, 8~9세기, 高 36.8cm, 幅 28cm, 삼성미술관, 국보 174호



도 10-1 받침접시 세부

어자문은 정과 망치질의 각도, 강약, 속도 등이 서로 일치되면서 적절한 손목의 움직임이 받쳐주어야만 고르고 정확하게 찍힐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匠人의 능숙한 기술과 노동력이 요구된다. 앞서 언급한「造法華寺金堂所解」에는 工匠의 日當이 함께 기록되어 있어, 각 장인 간에 세부적인 분업이 이루어지고 전문기술에 따라 품삯에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奈良時代に 魚子打工은 佛像이나 銅鏡을 제작하는 장인의 임금보다는 낮으나 畫師의 임금보다는 높은 금액을 받고 있었다.<sup>20</sup> 따라서 이미 奈良時代보다 앞서 어자문기법이 정착된 통일신라시대에는 전문장인으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비교적 높은 대우를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sup>18</sup> 국립중앙박물관, 『영원한 생명의 울림 통일신라 조각』(2009), p. 203, 도 11 참조.

<sup>19</sup> 『三國史記』卷33「雜錄」2, 車騎, 器用條.

<sup>20</sup> 魚子打工은 형태를 제작하는 眞作工과 문양의 윤곽선을 새기는 堞打工과 함께 40푼이라는 상당히 높은 임금을 받고 있었다[각주 7 참조]. 奈良時代に 工匠은 대부분이 渡來人의 후예였고, 국가에서는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이들에게 敍位, 賜物, 賜性 등에 의한 장려·우대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工匠은 국가의 관리 하에 비교적 좋은 대우를 받고 있었으며 工錢은 각 개인의 기술·실적별로 공정하게 지불되었다. 野間清六, 『日本上代の工匠に就いて(下)』, 『國華』640(1944. 3), pp. 82-86.

### Ⅲ. 고려시대 魚子文 금속공예품의 유행과 발전

고려시대에 어자문 금속공예품은 통일신라시대에 비해 훨씬 다양한 재질과 기종으로 광범위하게 제작되었다. 고려 왕실을 비롯한 문벌귀족층 등으로 수요층이 확산되면서 어자문기법은 불교공예품뿐 아니라 기명류·장신구·화장용구 등의 일상공예품에 보다 폭넓게 장식되었다. 고려시대 어자문 금속공예품이 유행할 수 있었던 배경은 크게 고려전기에 정비된 관영수공업의 생산체제 및 北宋·遼 등과의 대외교섭,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 1. 어자문 금속공예품의 발전배경

고려시대는 金·銀·銅·鐵 등의 금속재료 생산이 풍부하여 금속기가 일상기명으로 가장 활발히 사용된 시기였다. 그 중 銅器는 고려인의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인 기물이었으며, 金銀器는 국가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와 의식, 대외문물 교류, 왕실 및 상류층의 일상생활에 사용되거나 관료 등 개인에게 하사품으로 지급되었다. 고려시대 금속공예품이 발전할 수 있었던 여건에는 고려전기에 광범하게 성립된 특수행정구역인 所 등에서의 안정적인 원료 조달, 그리고 官屬工匠의 제도화·조직화를 기반으로 한 관영수공업의 체계적인 생산체제를 들 수 있다.

고려는 금속원료와 같이 현지성이 요구되는 특수한 생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전국에 여러 가지 所를 설치하였으며, 특히 고려 초부터 은의 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sup>21</sup> 成宗代(981-997)에는 관영수공업의 성립과 운영을 위하여 工匠案을 작성하는 한편, 工匠役을 세습하게 하고 工匠의 入仕를 금지하는 등 工匠의 제도화를 추진하였다. 이에 工匠은 특정 관청에 소속되어 내부적으로 일정한 위계질서를 갖추게 되었으며, 관영수공업의 생산체제는 각 업종에 속한 工匠이 일정한 세부공정을 맡아 협업하는 일종의 분업형태로 이루어졌다.<sup>22</sup>

<sup>21</sup> 所의 성립 시기는 太祖 23년(940) 무렵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所에서 생산되는 주요 품목은 金·銀·銅·鐵·磁器·종이·먹·소금·숯·茶 등이 해당되었다. 田炳武, 「高麗時代 銀流通과 銀所」, 『韓國史研究』 78(1992), pp. 71-73.

<sup>22</sup> 徐聖鎬, 「高麗前期 手工業 研究」(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7), pp. 7-17.

『高麗史』卷80, 「食貨3, 祿俸, 諸衙門工匠別賜條(文宗 30년, 1076)에는 수공업관청별로 소속된 工匠과 工匠의 직위에 따라 지급하는 別賜 액수가 규정되어 있어, 수공업과 관련된 관청 및 각 소속 工匠의 업종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 중 금속제품의 제작을 담당했던 곳은 掌冶署로, 掌冶署에는 금속원료를 가공하여 세공품을 만드는 金箔匠·銀匠·鏡匠·白銅匠·生鐵匠 등의 工匠이 소속되었다.

즉, 국가의 통제와 관리 하에 필요한 물품을 보다 신속하고 조직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생산과정의 효율성을 提高시킨 관영수공업 체제와 화려한 사치품에 대한 귀족들의 늘어나는 수요는 전반적인 금속공예품의 제작에 큰 원동력이 되었을 것이다. 고려전기에 금은 공예품의 수요와 제작이 증가하고 사치풍조가 만연했던 상황은 『高麗史』의 기록에서도 나타나는데, 毅宗代(在位 1146-1170)에 사치풍조가 극에 달해, 明宗 5년(1175)에는 금은장식품의 사용을 금지하기에 이른다.<sup>23</sup>

11세기 이후 북송·요와의 활발한 대외교섭에 따른 금은기 및 금은세공기술의 유입은 어자문 금속공예품의 제작에 큰 전환점이 되었으며, 특히 금은기의 발전이 송보다 앞선 요와의 밀접한 관계가 주목된다.<sup>24</sup> 고려는 993년(成宗 12)을 시작으로 총 세 차례에 걸친 요의 침입이 있기 전까지 본래 五代(907-960)·北宋과 긴밀한 관계를 지속하였다. 그러나 요의 압력으로 1031년(顯宗 22)부터 1070년(文宗 24)년까지 북송과의 정상적인 국교가 중단되고, 고려와 요 간에는 994년(成宗 13)부터 공식적인 국교가 맺어져 1125년(仁宗 3) 요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양국 간의 문화교류는 요의 마지막 침입이 끝나는 1020년(顯宗 11)부터 약 1세기 동안 그 어느 때보다 활기를 띠며 진행되었다.

고려와 요와의 무역은 使行貿易이 公貿易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교역품목은 상류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치품과 고급품이 주류를 이루었다.<sup>25</sup> 요에서 전해진 金銀器·冠服·衣帶·織物·馬具·武器 등은 그 우수한 품질로 인하여 고려의 산업생산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된다. 요는 자신들의 영역에 편입시킨 漢人 俘虜 집단 등으로부터 선진기술을 전수받은 결과, 織造技術과 冶金技術 등에서 빼어난 솜씨를 선보였다. 그 중 요의 마구는 宋 太平老人이 저술한 『袖中錦』에서 ‘天下第一’이라고 칭해질 정도로 뛰어났으며, 선조·타출·어자문기법 등으로 정교하게 장식되었다. 고려 왕실의 말안장과 언치는 요의 영향을 받아 金·銀·玉 등으로 더욱 화려하게 꾸며진 것으로 보인다.<sup>26</sup>

<sup>23</sup> 『高麗史』卷19, 「世家」19, 毅宗 己丑 23年 2月 乙卯條, “... 內侍劉邦義奏得文李竦... 魏綽然等深結宦寺約爲兄弟以剝民媚主爲事創寺繪佛設齋祝聖又制別貢金銀鍮銀鍮皿山積...; \_\_\_\_\_, 卷19, 「世家」19, 明宗 乙未 5年 4月 丙寅條, “... 又華侈踰度宴飲過極其悉除之 若金銀物飾畫佛像法寶外亦不得施用...”

<sup>24</sup> 고려 금속공예에 보이는 대중교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안귀숙, 「高麗時代 金屬工藝 對中交涉」, 『高麗 美術의 對 外交渉』(예경, 2004), pp. 153-192.; \_\_\_\_\_, 「고려 금속공예에 보이는 遼文化的 영향」, 『이화사학연구』 40(2010), pp. 119-161 참조.

<sup>25</sup> 양국 간의 使行 빈도는 顯宗代(1010-1031)부터 睿宗代(1105-1122)에 이르기까지 가장 왕성하였다. 고려와 요 사이의 使行 횟수와 종류에 대해서는 朴漢男, 「高麗의 對金外交政策 研究」(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3), pp. 106-107, 표 3-2와 3-2:1 참조.

거란의 침입이 있었던 1010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12세기 전반까지 거란인의 귀화가 집중되었는데,<sup>27</sup> 당시 우수한 기술을 가진 契丹系 匠人을 王府에 머물게 했다는 『宣和奉使高麗圖經』의 기록을 통해 이들이 고려의 수공업에 투입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sup>28</sup> 아울러 『訓要十條』와 『高麗史』 등의 내용으로 미루어, 국가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매우 화려한 거란 문화가 고려 사회에 상당히 보급되고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sup>29</sup>

## 2. 어자문 금속공예품의 종류와 장식유형

어자문 금속공예품의 종류는 크게 불교공예품과 일상공예품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왕실과 귀족층의 사치품인 장신구와 화장용구 등이 많은 양을 차지한다. 불교공예품은 사리기와 경갑, 금강령 등이 대표적이고, 남아있는 사리기와 경갑의 경우 통일신라 양식을 계승한 고려 초의 작품이 대다수이다. 13-14세기에 집중적으로 제작된 금강령은 사리기 등과 함께 어자문기법의 명맥을 꾸준히 이어갔다. 일상공예품은 기명류·화장용구·장신구 등이 포함되며, 특히 몸에 직접 패용하는 팔찌나 장도집, 鈔帶 등에서 고려시대 어자문기법의 가장 정교하고 뛰어난 시문수법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어자문기법은 누갈정으로 재빠르고 손쉽게 원문을 표현함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장식되었으며, 통일신라시대를 이어 고려시대에도 바탕 장식과 부분 장식, 두 가지 유형이 다양하게 활용되었다.

<sup>26</sup> 『宣和奉使高麗圖經』 卷15, 「車馬」, 使節馬條, “… 鞍韉之制 唯王所乘 以絳羅繡韉 益以金玉飾 國官大臣 以紫羅繡韉 以銀爲飾 餘如契丹之俗 亦無等差 …” 대표적인 유물로 상명대학교박물관 소장 〈金銅·靑銅製馬具裝飾일괄〉과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金銅製雲龍文鞍飾金具〉가 있다. 〈金銅製雲龍文鞍飾金具〉(덕수 5721)는 용의 비늘을 어자문기법으로 표현하였다(朝鮮總督府 編, 『朝鮮古蹟圖報』 第9冊[東京: 出版科學總合研究所, 1982], p. 1262, 도 4294).

<sup>27</sup> 朴玉杰, 『高麗時代の 歸化人 研究』(國學資料院, 1996), p. 59, 표 3 참조.

<sup>28</sup> 『宣和奉使高麗圖經』 卷19, 「民庶」, 工技條, “… 亦聞契丹降虜數萬人 其工伎十有一擇其精巧者 留於王府 比年器服 益工 第浮僞頗多 不復前日純質耳.”; \_\_\_\_\_, 卷23, 「雜俗」2, 土產條, “… 不善養蠶 其絲 線織紅 皆仰買人 自山東 閩浙來 頗善織文羅花綾緊絲 錦 邇來 北虜 降卒 工技甚衆 故益奇巧 染色又 勝於前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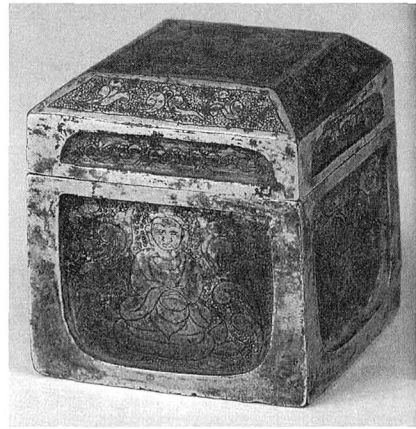
<sup>29</sup> 『訓要十條』 其四曰, “… 契丹是禽獸之國風俗不同言語亦異衣冠制度慎勿效焉”; 『高麗史』 卷16, 「世家」16, 仁宗 己酉 7年 甲辰條, “… 華夏之法切禁丹狄之俗今則上自朝廷下至民庶競華靡之風襲丹狄之俗往而不返深可嘆也…”

## 1) 바탕 장식

어자문기법은 단독이 아닌 주문양과 결합될 때 바탕 장식으로서의 제 역할을 해내므로, 주문양의 기법에 따라 시문수법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 주문양의 기법은 크게 線彫기법과 打出기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① 線彫기법과의 결합

선조기법과의 결합은 어자문기법이 금속공예품의 바탕 장식으로서 활용되기 시작한 가장 초기 유형이자 기본적인 유형이다. 선조기법과 함께 장식된 어자문기법은 음각된 원문 하나하나가 비교적 선명하게 보이고, 선조기법과 대등하게 육안으로 분명하게 확인된다. 어자문기법은 성기고 불규칙한 유형과 치밀하고 정연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성기고 불규칙한 유형은 대개 통일신라 말의 경향을 이어 제작된 고려 초의 불교공예품에서 자주 보인다. 미국 개인 소장 <金銅製方形舍利函>(도 11)은 唐代 사리기에 일반적으로 채택되었던 蓋頂形 方形函으로, 이 기형은 통일신라와 발해의 사리기에 적용되었으며 요대에도 이어졌다. 사리함의 각 면에는 연화좌 위에 앉아있는 부처와 雲氣文, 唐草文 등을 간략하게 새기고, 바탕을 질서정연하지 않은 어자문기법으로 메웠다. 普源寺址5층석탑에서 출토된 <金銅製圓筒形舍利內盒>은 몸체의 앞뒷면에 마주 서 있는 四天王像을 2구씩 묘사하였으며, 뚜껑과 몸체 쏘면에 시문된 어자문은 제대로 찍히지 않고 겹친 형태가 많다.<sup>30</sup> 석탑 내에서는 사리기 외에 납석제 소탑 12기가 따로 발견되어, 통일신라시대에 유행하



도 11 <金銅製方形舍利函>, 10~11세기, 高 6.4cm, 미국 개인 소장

<sup>30</sup> 국립부여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1997), p. 119 참조.

<sup>31</sup> 기존에 통일신라시대로 설정되었던 불국사 석가탑 발견 銀製舍利器 두 점에 대해서는 『佛國寺西石塔重修形止記』(1038)의 해석에 따라 靖宗 4년인 1038년에 제작되어 추가 납입되었다는 의견이 주장된 바 있으며(한정호, 『高麗 靖宗 4년 <佛國寺西石塔重修形止記>와 석가탑 사리장엄구』, 『新羅文化』 32[2008.8]), 이와 동일한 공방의 작품일

있던 『無垢淨光大陀羅尼經』에 의한 조탑공양 방식을 계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31</sup>

어자문기법은 호신용 다리니경이나 부적을 넣고 다녔던 경갑에서도 武裝을 한 神將像과 함께 장식되었다. 月精寺8각9층석탑 출토 〈金銅製方形盒〉(도 12)은 앞뒷면에 신장상을 섬세하게 새겼으며, 어자문은 모두 명확하게 찍혀있으나 서로 중복된 부분이 많고 무질서하다(도 12-1).<sup>32</sup> 이와 같이 10세기 이후로 편년되는 사리기나 경갑 등에서 어자문은 직경이 1mm도 안 되는 작은 크기이지만 대체로 성기고 고르지 않다.<sup>33</sup> 고려 초는 기술력이 성숙되기 이전 단계로서, 통일신라의 공예기술을 기반으로 불교공예품을 위주로 장식되었다고 생각된다.

어자문기법은 前述한 발전배경을 토대로 11세기 이후부터 일상공예품에 다양하게 장식되며 유행하였다. 고려시대 은제접시와 碗에 장식된 어자문기법은 葵花形을 한 口緣 내부를 가



도 12 〈金銅製方形盒〉 앞면, 10세기, 4.35×4.1cm, 강원도 평昌 월정사 8각9층석탑 출토. 월정사성보박물관



도 12-1 몸체 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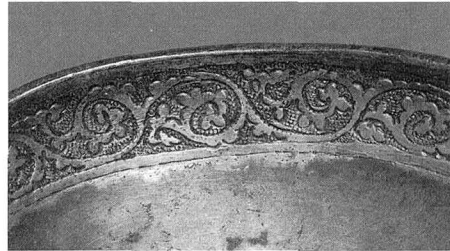
것으로 추정되는 傳 경주 남산 출토 銀製舍利器 두 점은 『佛國寺無垢淨光塔重修記』(1024)를 통해 1038년 무렵에 제작되어 불국사 다보탑에서 반출되었을 것이라고 주장된 바 있다(\_\_\_\_, 『佛國寺無垢淨光塔重修記와 小倉걸렉선 傳 경주 남산출토 사리장엄구』, 『美術史論壇』 3[2008, 12]). 본 논문에서는 이 작품들에 대해 아직 논란이 있고 절대연년으로 확정되지 않았기에, 논의에서 제외하였음을 밝혀둔다.

<sup>32</sup> 〈金銅製方形盒〉은 출토 당시 향가루가 들어있었다고 하여 쉰이라고 칭해지고 있으나, 신장상 등의 표현을 볼 때 經匣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크다.

<sup>33</sup> 경갑은 개성 부근에서 출토되었다고 알려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金銅製神將像文經匣〉이 1점 더 있으나 현재 유물은 실견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세로 방향으로 속도감 있게 시문된 어자문은 반원 형태가 많고 정연하지 않다. 도판은 국립청주박물관, 『국립청주박물관』(1987), p. 73, 도 130·131 참조.



도 13 〈銀製六花形접시〉, 12세기 초, 高 2.4cm, 최대지름 11.5cm, 국립중앙박물관



도 13-1 구연 세부

득 메우는 형태로 등장한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銀製六花形접시〉(도 13)와 미국 보스턴미술관 소장 〈銀製八花形碗〉은 구연부를 따라 구획을 만들고 그 안에 각각 유려한 당초문과 연화절지문을 새긴 후, 세밀한 어자문을 시문하였다(도 13-1). 또한 도금을 구연 내부에만 하여 주문양을 훨씬 두드러져 보이게 하였다. 각 소장품 모두 두 점씩 한 세트를 이루고 있으며, 섬세한 장식수법으로 보아 당시 왕실에서 사용된 고급기명이었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銀製六花形접시〉의 구연 바깥쪽에는 ‘福寧宮房庫’라고 새겨져 있어 福寧宮房의 창고에 귀속되었던 물건임을 알 수 있다. 복녕궁방은 肅宗의 넷째 딸이자 睿宗의 친동생인 福寧宮主 王氏(1096-1133)의 거처이다.<sup>34</sup> 어자문기법은 花形器皿이라는 용도의 실용성을 살려 구연 장식으로 적용되었으며, 이는 송대 유적에서 출토된 화형기명에서도 볼 수 있다.<sup>35</sup> 唐代나 遼代 기명 중에는 표면 또는 內底까지 뽀뽀하게 장식한 경우가 많은데, 종종 鉢盂나 왕실용 祭器 등 특수한 용도로 사용되었다.<sup>3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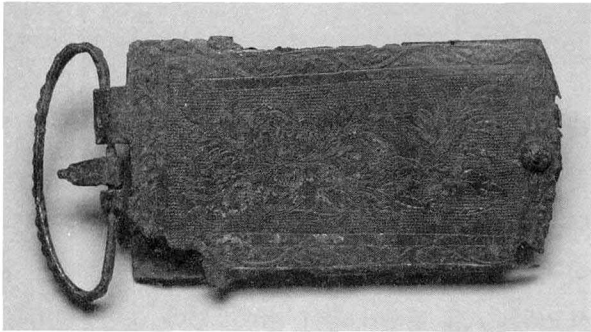
어자문기법의 치밀하고 정연한 유형은 官服의 장신구인 鈎帶 중 허리띠를 끼울 수 있도록 한쪽 끝에 다는 鉸具에서 집중적으로 볼 수 있다. 鈎帶는 특정한 지배계층만이 착용할 수 있는 관복의 구성요소였던 만큼 높은 수준의 관영수공업에서 정해진 模本에 따라 제작되었다고 추정되며, 그 중에서도 鉸具에 장식된 어자문기법은 매우 뛰어난 솜씨를 보인다. 이것은 허리의

34 고려시대의 궁방은 토지를 비롯한 별도의 재정을 기반으로 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되었고, 복녕궁주의 재산은 당시의 종실 가운데 가장 많았다고 한다. 『高麗史』卷91, 「列傳4, 公主條, “福寧宮主亦明懿太后所生適晉康伯演睿宗九年 冊爲公主性婉順爲兩宮所愛富爲宗室第一崇信佛法營飾塔廟甚勤仁宗十一年 卒諡貞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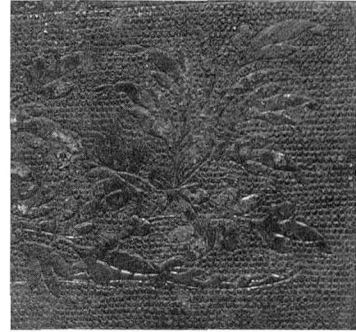
35 楊伯達 主編, 『中國金銀玻璃瑠璃器全集』金銀器 2(河北美術出版社, 2004), 도 202; 成道市文物考古研究所·彭州市博物館, 『四川廣安宋代金銀器窖藏』(科學出版社, 2003), 도 25 참조.

36 遼代 文忠王府에 공양된 제기인 〈金製龍文六花形鉢〉(1027년)의 내부 全面에는 어자문이 선명하고 깊게 시문되어 있다. 韓偉, 「遼代太平年間金銀器 文考釋(上)」, 『月刊古宮文物』129(1993), p. 21, 도 15.

중앙에 놓이는 교구의 위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훨씬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이해된다. 현존하는 과대 중에는 교구만이 별도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은데,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金銅製雙鳳文鈸具〉, 삼성미술관·국민대학교박물관·독일 쾰른 동아시아박물관과 미국 코넬대학교미술관에 각각 소장된 〈金銅製花文鈸具〉(도 14) 등이 이에 속한다. 이들 교구에 어자문은 기계적이라 할 정도로 단 하나의 흐트러짐 없이 질서정연하게 시문되었다(도 14-1).<sup>37</sup> 교구의 바깥 테두리에는 이보다 절반 정도 작은 크기의 어자문으로 당초문 사이를 빈틈없이 채웠다. 더구나 어자문은 금속재질이 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깊고 균일하게 찍혀있어, 관장의 숙련된 시문솜씨가 집약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당과 요에서 어자문이 대부분 무르고 탄성력이 높은 금은제품에 시문된 것에 비해, 고려에서는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 동제품에 훨씬 널리 장식되었다. 동은 민간의 생활기명이나 銅鏡, 사찰의 불교용구, 동전 제조 등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여 銅所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생산되었다. 어자문기법의 시문수법은 금속의 재질과 두께 등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고려는 재질의 차이를 능가하는 탁월한 기술력을 보유했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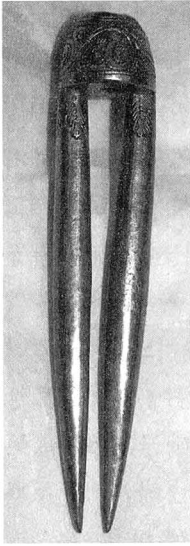
도 14 〈金銅製花文鈸具〉 앞면, 고려, 長 11.5cm, 幅 4.85cm, 厚 0.6cm,  
독일 쾰른 동아시아박물관



도 14-1 앞면 세부

<sup>37</sup> 완벽하게 줄지어 시문된 어자문의 모습에서, 정 끝부분에 2~3개 이상의 원형 단면을 연결한 多重釘이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제시된 바 있다(안귀숙, 「고려 佛具의 의미와 제작기법-宇鶴文化財團 소장품을 중심으로-」, 『佛法으로 피어난 금속공예: 고려시대 佛具』[용인대학교박물관, 2006], p. 133). 현대에 쓰이고 있는 다양한 다중정은 한꺼번에 수많은 어자문을 훨씬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찍기 위해 고안된 것이므로, 고려시대에도 그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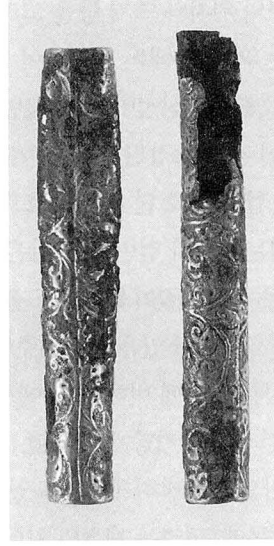
<sup>38</sup> 〈銀製袈裟裝飾具〉는 국립중앙박물관, 『하치우마 타다수선생 기증유물 특별전』(1995), p. 19, 도 26 참조, 〈純金製銅串〉은 국립중앙박물관 금속공예실에 전시 중이다.



도 15 <純金製銅串>, 고려, 개성 부근 출토, 長 5.5cm, 국립중앙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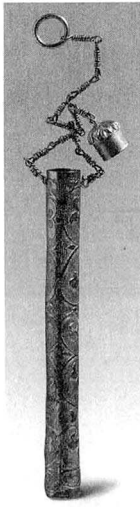
도 15-1 머리 세부



도 16 <金銅製唐草文針筒>, 고려, 長 8.4cm, 徑 1.2cm, 삼성미술관



도 16-1 몸체 세부



도 17 (左) <金製唐草文針筒>, 요, 1018년, 內蒙古 奈曼旗 陳國公主駙馬 合葬墓 출토, 全長 11.7cm, 徑 1.2cm, 內蒙古 文物考古研究所



도 17-1 (右) 몸체 세부

그 밖에 스님들이 袈裟 착용 시 띠를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袈裟裝飾具, 남자들의 상투머리를 고정시키기 위해 꽂는 銅串, 줄을 매달아 허리에 패용하였던 針筒 등 각종 장신구에도 빠지지 않고 시문되었다.<sup>38</sup> 가장 장식구는 가사고리와 빗장이 한 쌍을 이루며, 고려시대 가사고리는 八稜 형태가 많이 전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銀製袈裟裝飾具>는 八稜形 가사고리에 연화 당초문을, 一字形 빗장에 당초문을 정교하게 새긴 후 바탕에 조밀한 어자문을 시문하여 銀질감의 광택을 잘 살리고 있다. 남자들에게 중요한 장신구의 하나였던 동곳은 특별한 신분의 구별이 없었으나 상류층에서는 옥이나 금·은 등으로 만들어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純金製銅串>(도 15)은 半球形 머리 부분에 당초문을 유려하게 음각하고 어자문을 촘촘하게 시문하였

으며, 꽃이 윗부분에는 꽃잎 모양 등을 장식하였다(도 15-1). 삼성미술관에 소장된 〈金銅製唐草文針筒〉(도 16) 역시 섬세한 장식수법이 돋보이는데, 어자문은 표면 가득 배치된 당초문 사이로 꼼꼼하게 시문되었다(도 16-1). 이 침통은 요대 陳國公主駙馬 合葬墓에서 출토된 〈金製唐草文針筒〉(도 17)과 어자문과 당초문 등에서 유사성을 보여 영향관계가 엮힌다(도 17-1). 이처럼 어자문기법은 작은 크기의 장신구에까지 구석구석 시문되면서 활용범위가 확산되었고, 고려시대 금속공예품의 주요한 장식기법으로 발전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조기법과 조합된 어자문기법은 기본적으로는 음각된 원문의 요철로 금속질감에 변화를 주는 의도를 지닌다. 그러나 打出기법과 결합된 유형과 비교하면 금속재질의 특성을 살린 반사효과보다는, 상대적으로 주문양을 부각시키기 위한 시각적인 효과가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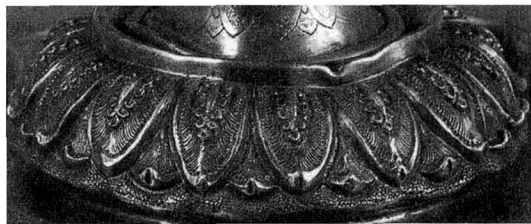
## ② 打出기법과의 결합

어자문기법은 12세기에 발전한 高浮彫 타출기법과 결합하여, 좁은 여백 사이를 치밀하게 장식하며 전성기에 달하였다.<sup>39</sup> 어자문은 높은 타출면 사이마다 눈으로 확인하기 힘들만큼 깨알같이 시문되어 개별 존재감은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타출하기 위해 두드린 금속판의 굴곡으로 인해 어자문의 요철은 더욱 뚜렷하고 입체적이다.

아모레퍼시픽미술관 소장 〈銀製鍍金托盞〉(도 18)은 托臺에 중첩된 複蓮瓣文을 타출하고 여백에 정밀한 어자문을 깔아 연판문의 입체감을 보다 강조하였다(도 18-1). 잔과 잔받침[盞托



도 18 〈銀製鍍金托盞〉, 11~12세기,  
全高 9.2cm, 全徑 14.7cm, 디아모레 뮤지엄



도 18-1 托臺 세부

<sup>39</sup> 고려시대 타출기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김은애, 앞의 논문(2007. 3) 참조.



도 19 <銀製鍍金托盞>, 요대전기, 巴林石旗哈墓 출토, 全高 9.5cm, 盞托지름 16.8cm, 巴林石旗博物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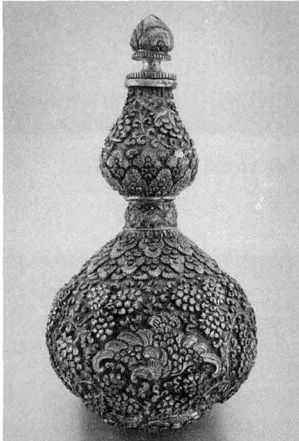
도 19-1 (上) 잔의 굽과托臺,  
(下)托盤의 세부

]을 꽃모양으로 제작하고托臺에 화려하게 문양을 장식한托盞은 왕실과 사찰에서 고려 초부터 유행했던 進茶儀禮에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에서는 요대 <銀製鍍金托盞>(도 19)에 잔의 굽과托臺에 복연판문을,托盤에는 당초문을 새기고 어자문을 듬성듬성 장식한 예가 있으나(도 19-1), 고려 탁잔에서처럼 타출과 어자문기법을 정교하게 조합한 예는 찾아볼 수 없다. 높게 솟아오른托臺에 선조·타출·어자문기법 등으로 화문이나 연판문 등을 장식한 것은 고려시대 금속제 탁잔의 특징이다. 금속제 탁잔의 기형과 문양은 12~13세기에 靑磁로 모방되어 활발하게 제작되었는데, 청자托臺에 어자문기법을 응용하여 한 줄의 연주문을 둘러거나 연판에 부분적으로 장식하였다.<sup>4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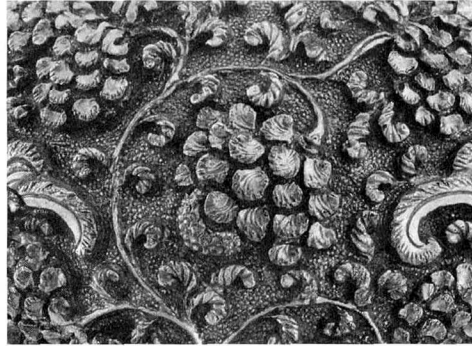
다음으로 살펴볼 표형병·팔찌·장도집·고리형합 등은 문양구성과 장식기법에서 공통점을 보여 일괄로 제작되었거나 동일한 장인집단이 만들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sup>41</sup> 이들 유물은 개성 부근에서 출토되었다고 전해지는 것들이 많고 실제로 표면에 흠이 묻은 채로 발견된 예 등으로 미루어, 대다수가 상류층의 고분에 부장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瓢形瓶은 중국에서 10세기 이후에 출현하여 11세기 이후 북방지역에서 더욱 성행한 기형으로, 금속·도자·유리 등으로 제작되었으나 그 중 금속제는 흔치 않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銀製鍍金花鳥文瓢形瓶>(도 20)과 <銀製鍍金蓮唐草文瓢形瓶>, 국립전주박물관 소장 <金銅製花鳥文瓢形瓶>은 모두

<sup>40</sup> 국립문화재연구소, 『일본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오구라 컬렉션 한국문화재』(2005), 도 678; \_\_\_\_\_, 『미국 보스턴 미술관 소장 한국문화재』(2004), 도 174 참조.

<sup>41</sup> 崔應天, 『高麗時代 打出技法 工藝品 四例』, 『박물관신문』 225(국립중앙박물관, 1990, 5.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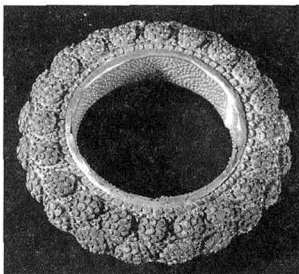
도 20 <銀製鍍金花鳥文瓢形瓶>  
12세기, 高 11.1cm, 胴體지름  
5.5cm, 국립중앙박물관



도 20-1 몸체 세부

香油瓶으로 추정되고 있는 작품으로, 全面에 봉황 또는 덩굴진 꽃문양 등을 가득 타출한 뒤 굉장히 치밀한 어자문기법으로 바탕을 메웠다. 어자문은 기물 안쪽에서 두드린 금속표면에 다시 누갈정으로 바깥쪽을 눌러주어 더욱 튀어나와 보이고, 요철의 변화폭도 커서 금방이라도 떠오를 듯한 타출문양을 훨씬 돋보이게 해준다(도 20-1). <銀製鍍金蓮唐草文瓢形瓶>은 바탕에 시문한 어자문보다 몇 배 이상 큰 어자문으로 꽃술과 연밥 등을 표현하여 크기가 다른 두 종류의 누갈정이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표 I-2).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전주박물관에는 <銀製鍍金花文팔찌>(도 21)와 <銀製鍍金花鳥文裝刀鞘>(도 22)가 각각 한 세트씩 소장되어 있다. 네 점의 팔찌와 장도집은 여러 층으로 구성된 포도송이 형태의 꽃문양을 가득 타출한 후, 빈틈없는 어자문기법으로 여백을 메웠다. 이에 더해 장도집에는 각 마디마다 葵花形 구획 안에 한 마리 혹은 두 마리의 봉황을 묘사하였다. 꽃



도 21 <銀製鍍金花文팔찌>, 12세기,  
外徑 9.6cm, 內徑 5.7cm,  
국립중앙박물관



도 21-1 겉면 세부

문양은 한 송이의 꽃마다 작은 잎들이 감싸고 있는데, 꽃술 표현에도 어자문 기법을 이용하였다. 특히 몇 줄의 음각 선을 그려 파배기처럼 꼬인 듯이 묘사한 꽃잎의 형태는 앞서 언급한 표형병과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어자문은 고부조로 타출된 문양에 문혀 세세히 관찰하지 않으면 시문되었는지 알기 어려울 정도이며, 매우 협소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선명하고 고르게 찍혀있다(도 21-1, 22-1). 이는 장인의 능숙한 기술력과 고도의 집중력 없이는 해낼 수

없는 작업인 것이다. 고려시대 장도집의 전형적인 형태는 양끝 부분이 좁고 가운데가 볼록하게 부푼 원통형으로, 전체 길이가 평균 20cm를 넘는다. 칼집의 입구 부분은 한쪽을 길게 뚫으며 위쪽 측면에는 휴대하고 다닐 수 있도록 고리를 달았다. 이처럼 호화스럽게 장식된 <銀製鍍金花鳥文裝刀鞘>와 <銀製鍍金花文 팔찌>는 신분과 권위를 상징하기 위한 의식용이나 장식용으로 제작되어 왕실에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요에서는 팔찌가 한 쌍으로 출토되는 점이 특징으로, 꽃이나 새 등을 타출하고 어자문을 조밀하게 장식한 金製팔찌들이 전한다(도 23, 도 23-1). 그러나 꽃문양을 뽀뽀하게 고부조로 타출하고, 육안으로 보기 힘들 정도로 치밀한 어자문을 구사하는 것은 고려만의 미감으로 판단된다. 이 밖에도 고려 팔찌 중에는 葵花形 또는 橢圓形의 구획 안에 꽃과 새 등을 타출하고, 구획 사이를 연화·모란당초문과 촘촘한 어자문으로 채운 유형의 팔찌가 여러 점 남아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銀製鍍金花鳥文 팔찌>(도 24)는 二重 타원형 안에 꼬리가 짧은 쌍조문과 긴 쌍조문을 번갈아 배치하고, 다소 산만한 어자문기법으로 바탕을 장식하였다(도 24-



도 22 <銀製鍍金花鳥文裝刀鞘>, 12세기, 개성 부근 출토, 長 23cm, 국립중앙박물관



도 22-1 몸체 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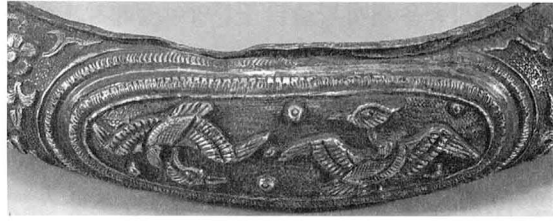
도 23 <金製花鳥文 팔찌>, 요, 지름 6.6cm, 너비 5.5cm, 중국 夢蝶軒 수집품



도 23-1 겉면 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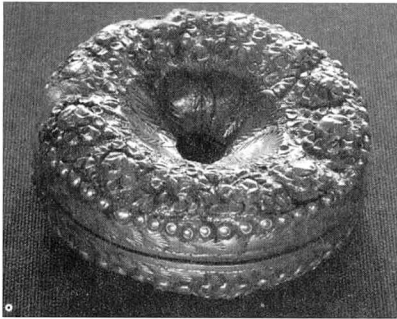
도 24 <銀製鍍金花鳥文팔찌>, 고려, 徑 9.3cm, 高 1.8cm, 국립중앙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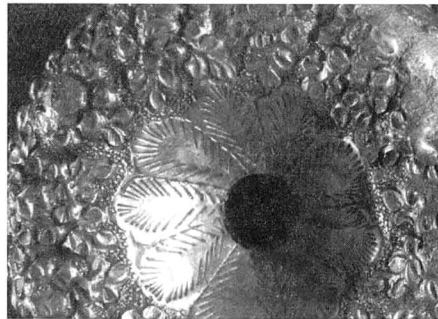
도 24-1 겹면 세부

1). 이것은 새와 용, 童子 등을 간략하게 타출한 뒤 어자문 또는 점문을 찍은 장도집과 유사한 형식을 갖는다.<sup>42</sup> 이러한 팔찌와 장도집은 낮은 타출과 단순화된 문양표현, 어자문 대신 점문을 찍어 장식하는 모습 등을 보아, 지방에서 제작되었거나 앞서 본 작품들에 비해 시기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銀製鍍金環形盒>(도 25)과 용인대학교박물관 소장 <金銅製環形盒>은 중앙의 구멍에 끈을 연결하여 몸에 패용하던 굵은 고리 형태의 향합이다. 용인대학교박



도 25 <銀製鍍金環形盒> 12세기, 高 2.4cm, 徑 5.8cm, 국립중앙박물관



도 25-1 뚜껑 윗면 세부

<sup>42</sup> 抽稿, 앞의 논문(2007), pp. 98-103 참조.

고려시대 팔찌는 다양한 장식기법 때문에 거칠어진 안쪽면을 가리기 위하여 별도의 금속판을 덧댄 점이 특징이다. 덧댄 안판에는 화문 등을 새기고 어자문기법으로 세밀하게 시문하여 二重으로 장식 효과를 노렸다(국립문화재연구원, 앞의 책[2005], 도 529, <銀製鍍金花文팔찌> 참조). 삼성미술관 소장 <銀製蓮花唐草文팔찌>에서는 팔찌의 바깥판과 안판 사이에서 木版本符籙과 筆寫本陀羅尼經이 나와, 팔찌가 단순히 장신구로써만이 아니라 신변 보호와 소원 성취를 염원하기 위한 護符容器로도 쓰였음을 알 수 있다(호암갤러리, 『大高麗國寶展』[삼성문화재단, 1995], p. 291, 도 38).

물관 소장품은 현재 타출된 꽃문양이 뭉개지고 손상이 심한 상태이나, 두 작품 모두 뚜껑의 윗면에 12송이의 꽃문양을 돌아가며 타출하였으며 꽃문양의 사이마다 치밀한 어자문을 또렷하고 고르게 시문하였다(도 25-1). 〈銀製鍍金環形盒〉의 뚜껑과 몸체의 각 측면에는 한 줄의 연주문을 타출하였고 연주문 안에는 다시 직경이 넓은 원문을 하나씩 찍었다. 꽃문양 구성과 장식기법은 동시기 작품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銀製鍍金六花形托臺〉의 托臺 장식과 상명대학교박물관 소장 〈金製環形裝身具〉에서도 흡사하게 표현되었다.<sup>43</sup>

앞에서 언급한 작품들은 깨알같이 정밀한 어자문, 그리고 포도송이 형태의 꽃과 火焰 모양의 독특한 잎, 葵花形 구획 안에 꽃이나 새 등을 타출하여 배치한 구성을 볼 때, 어떤 모본이 있었다고 여겨질 만큼 공통된 모티프로 장식되어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보인다. 이러한 장식구성은 고려 왕실에서 선호하는 정교한 사치품을 제작하는 데 있어 하나의 패턴으로 유행하였고 생각된다. 여기에 어자문기법은 문양의 입체감을 살려주고 금은질감을 더욱 반짝거리고 화려하게 보이는 역할을 하여 빠짐없이 애용되었다.

극도로 세밀한 어자문기법과 금속공예품의 全面을 가득 채운 高浮彫 타출기법과의 결합은, 중국에서도 볼 수 없는 고려만의 특징으로서 12세기를 下限으로 발전하였다고 판단된다. 즉, 成宗代에 각종 官制가 완비되고 관영수공업이 성립된 이후, 요와의 교류가 활발해진 11세기 전반 경부터 기술력이 축적되어 11세기 후반 경에는 성숙기에 달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毅宗代에 사치풍조가 극에 이르러 明宗 5년에 금은장식품의 금지령을 내린 사실로 미루어보아, 화려한 금은공예품의 수요는 12세기까지 끊임없이 지속되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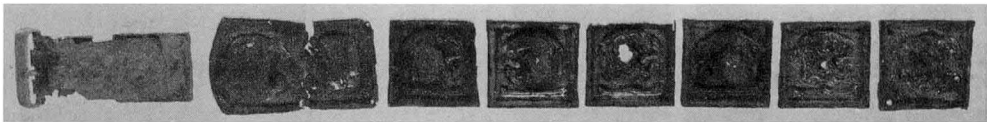
어자문기법이 즐겨 장식된 또 하나의 장신구로 신분의 등급에 따라 엄격하게 구별된 鈿帶가 있다. 과대는 관복의 특성상 당을 이어 북송·요·고려에서도 큰 변화 없이 일정한 형식으로 유지되었으며, 宋制를 따라 荔枝·鳳凰·寶相花·戲童文 등이 적용되었다.<sup>44</sup> 그 중 荔枝는 御仙花라고도 칭해지는 중국 福建省에서 나는 과일로, 송대에 관직 진출을 상징하는 길상적 의미로 중시되어 특정한 고위 관료들만이 착용하였다. 상명대학교박물관에 소장된 두 점의 〈金銅製荔枝文鈿板〉은 압출기법으로 제작한 어자문 사이를 빈틈없는 어자문기법으로 채웠다. 고려시대 금동제어자문과대는 국내에 여러 점이 남아있으나, 어자문기법이 장식된 어자문과대는

<sup>43</sup> 〈銀製鍍金六花形托臺〉은 호암갤러리, 위의 도록, 도 228 참조; 〈金製環形裝身具〉는 상명대학교박물관, 『천년을 이어온 우리공예이야기』(2005), 도 5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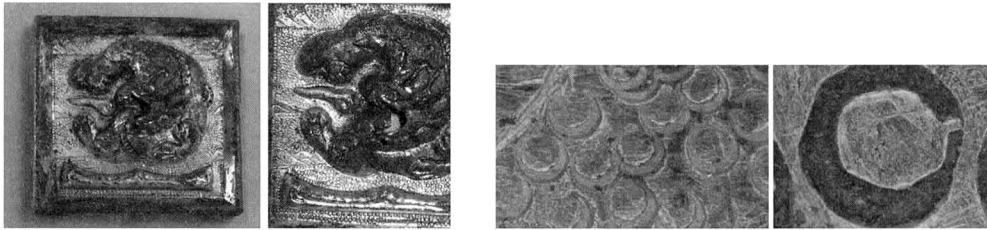
<sup>44</sup> 『宋史』卷153 志106 『輿服』, 諸臣服下 士庶人服條, “... 束帶則有金球路 荔枝 師蠻 戲童 海捷 犀牛 胡荻 鳳子 寶相花... 金塗 雙鹿 野馬 ...”

더욱 귀하게 취급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高麗圖經』의 기록에 의하면 ‘御仙金帶’를 從 1품에서 從 4품까지 착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45</sup>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金銅製怪獸文鈔帶>(도 26)는 사나운 표정으로 입에서 氣를 내뿜고 있는 怪獸가 배치되었다. 과수는 法獸의 상징인 獬豸로 추정되어, 주로 御使와 言官 등을 비롯한 御史臺 관리들의 과대로 착용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도 26-1). 어자문은 질서정연하지 않고 힘을 끌고루 조절하지 않아 반원 형태가 많은데, 현미경 사진을 통해 원형 끝이 살짝 벌어지고 굽기가 고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도 26-2). 『朝鮮古蹟圖譜』에 실린 <金銅製戲童文鈔帶>는 현재 실물은 전하지 않으나, 동자들이 활기차게 공을 차며 뛰노는 장면이 타출되었고 덩성덩성한 어자문이 시문되었다. 지팡이채[杖匙]로 공을 쳐 구멍 안에 집어넣는 놀이는 송·요·고려 왕실에서 일상적으로 즐겨하던 오락으로, 朝陽縣 前窓戶村 遼墓 출토 <銀製鍍金戲童文鈔帶>에서도 등장한다.<sup>46</sup> 과대의 바탕은 당초문과 함께 정밀한 어자문으로 메웠다. 이 과대를 소유한 墓主의 신분은 『宋史』와 『遼史』 등에 기록된 과대의 제도에 따라 5품 또는 적어



도 26 <金銅製怪獸文鈔帶>, 고려, 長 5.9~10.5cm 내외, 일본 하치우마 다다스(八馬理) 기증품, 국립중앙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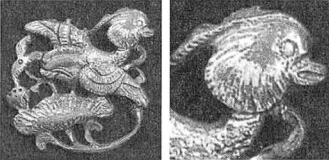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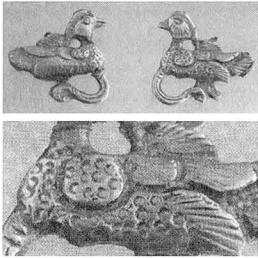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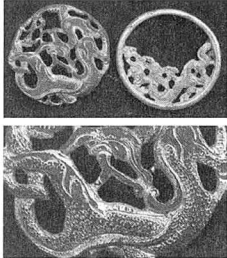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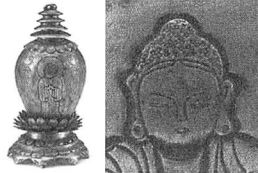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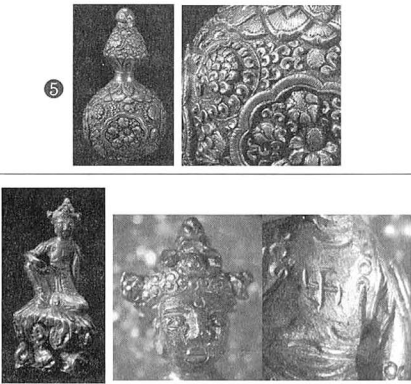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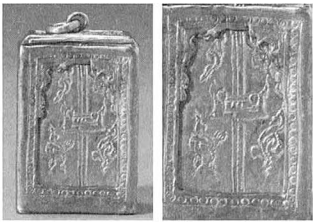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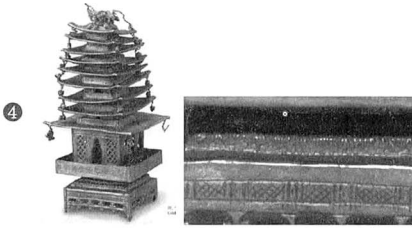
도 26-1 鈔板 세부

도 26-2 20배, 80배로 확대한 어자문의 현미경 사진

<sup>45</sup> 荔枝文鈔帶를 패용한 고려와 송의 관료들의 모습이 『宣化奉使高麗圖經』 卷7, 「冠服, 近侍服·從官服 條와 卷214, 「節仗, 次使副·次上節條에 기록되어 있다.

<sup>46</sup> <金銅製荔枝文鈔板>, <金銅製怪獸文鈔帶>와 <銀製鍍金戲童文鈔帶>의 과판 하단에서 볼 수 있는 山字形 ‘古眼’은 본래 契丹式 腰帶에서 弓, 箭, 錐, 刀, 針筒 등의 垂飾을 매달 수 있도록 과판의 하단에 뚫어놓은 것으로, 송에서는 보이지 않던 것이다(朱天舒, 『遼代金銀器』 文物出版社, 1998], p. 65). 고려 과판에서 古眼은 실질적인 기능이 필요치 않아 막힌 형태에 상징적으로 표현되었다.

표 I 부분 장식의 대표적인 유형

유형 구분	대표유물 및 세부표현	
1 유형		
2 유형		
		
3 유형		
		

〈표 각주〉

- 1 유형 ① 〈銀製鍍金裝身具〉, 고려, 長 3.0cm 전후, 국립중앙박물관  
2 유형 ① 〈銀製鍍金裝身具〉, 고려, 長 1.8cm, 상명대학교박물관  
② 〈銀製鍍金裝身具〉, 고려, 長 3.0cm, 국립중앙박물관  
③ 〈銀製鍍金喇嘛塔形舍利器〉, 1390·1391년, 강원도 금강산 월출봉 출토, 全高 19.8cm, 이성계 발원, 국립중앙박물관  
④ 〈金銅製誕生佛〉, 고려, 高 25cm, 일본 佐賀縣 萬歲寺  
⑤ 〈銀製鍍金蓮唐草文瓢形瓶〉, 11~12세기, 高 8cm, 胴體지름 4.7cm, 국립중앙박물관  
⑥ 〈銀製花形접시〉, 11~12세기, 口徑 10.5cm, 국립중앙박물관  
3 유형 ① 〈水月觀音像〉, 고려, 불감 高 4.0cm, 불상 高 3.3cm, 용인대학교박물관  
② 〈金銅製觀音菩薩坐像〉, 고려, 高 3.6cm, 傳 강원도 통천 답철면 華藏寺 5층석탑 출토, 국립춘천박물관  
③ 〈金製小形佛龕〉, 고려, 高 4.0cm, 국립중앙박물관  
④ 〈金製小形佛龕〉, 14세기, 경기도 양평군 水鍾寺 浮屠 출토, 高 12.7cm, 국립중앙박물관, 보물 259호

도 6품 이상일 것이며, 과대는 요 황제로부터의 하사품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된다.<sup>47</sup>

이와 같이 타출기법과 결합된 어자문기법은 요철로 대조되는 빛의 亂反射와 광택 효과를 통하여 금은의 색감 및 질감을 부드럽게 완화시키고 장식성을 최대화하였다. 더불어 여백의 공간을 적절히 활용하여 금·은 등 값비싼 재료의 효율성을 높여줌과 동시에, 문양의 입체감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앞서 奈良時代의 기록을 통해 유추할 수 있듯이, 어자문기법과 선조·타출기법을 장식하는 장인 간에는 분업이 행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sup>48</sup>

## 2) 부분 장식

부분 장식은 본래 주문양의 바탕 장식으로 발전하기 이전에, 누갈정을 이용하여 원문을 찍기 시작한 초기 단계부터 등장했던 유형으로 대개 문양의 일부로서 장식되었다. 부분 장식은 삼국·통일신라시대와 마찬가지로 고려시대에도 꾸준히 사용되었다. 고려시대에 자주 보이는 세부표현을 크게 세 가지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I). 첫째, 동물이나 인물의 얼굴에 단독 원문으로 눈 등을 표현한 유형(표 I-1), 둘째, 동물몸체의 반점문양, 부처

<sup>47</sup> 前窓戶村 遼墓의 묘주는 약 40세의 귀족 부인으로 추측되고, 묘의 제작연대는 부장유물과 묘실의 구조 등으로 볼 때 統和(983-1011) 末에서 開泰 初(1012-1020) 사이, 澶淵의 盟(1004)을 전후한 시기일 것이라고 평가된다. 靳楓 毅, 『遼寧朝陽前窓戶村遼墓』, 『文物』1980年 第12期, pp. 26-27.

<sup>48</sup> 敖漢旗薩力巴 鄉水泉 墓에서 출토된 요대 〈銀製鍍金雙鳳文鈎帶〉의 끝장식에는 앞면에 雙鳳文을 타출하고 어자문을 촘촘하게 장식하였는데, 뒷면에 ‘王文打’, ‘王銀釘’이라는 工匠銘을 적어놓아 두 명이 분업하였음을 알 수 있다. 于建設 主編, 『赤峰金銀器』(遠方出版社, 2006), pp. 210-211.

의 나발, 혹은 꽃잎이나 꽃술 등을 나타낸 유형(표 I-2), 셋째, 금동불·보살상의 寶冠帶, 瓔珞, 衣服 등의 장식이나 소형불감 및 불탑 등의 테두리 장식으로 連珠文帶를 표현한 유형이다(표 I-3).

둘째 유형 중 새와 용의 몸체를 어자문기법으로 뒤덮어 반점과 비늘문양을 나타낸 모습은 상명대학교박물관과 국립중앙박물관에 각각 소장된 <銀製鍍金裝身具>에서 볼 수 있다.<sup>49</sup> 금강산 월출봉에서 출토된 두 점의 <銀製鍍金舍利器>에 새겨진 불상에는 나발을 어자문기법으로 촘촘하게 시문하였으며, 실제 금동불에 표현된 예로 일본 佐賀縣 萬歲寺에 소장된 <金銅製誕生佛>이 있다. 꽃술을 가득 표현한 예로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銀製鍍金蓮唐草文瓢形瓶>과 <銀製花形접시>를 들 수 있다(표 I-2). 셋째 유형인 금동불·보살상에 장식된 어자문기법은 삼국시대부터 자주 보이던 유형으로, 용인대학교박물관 소장 <銀製小形佛龕>에 안치된 輪王座形 수월관음상에는 보관, 백호, 가슴과 신체에 드리운 영락 장식 등을 누갈정으로 정교하게 찍었다. 국립춘천박물관 소장 <金銅製觀音菩薩坐像>은 옷깃의 당초문을 어자문기법으로 묘사하였는데, 이러한 표현은 요대 陳國公主駙馬 合葬墓 출토 <銀製鍍金鳳文冠>에서 관의 테두리 장식과 人物像의 광배, 옷깃 등에 장식한 것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된다.<sup>50</sup> 또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金製小形佛龕>과 水鍾寺 浮屠에서 출토된 <金製小形塔>의 탑신부 및 옥개석 등에는 어자문기법으로 連珠文帶를 장식하였다(표 I-3). 이 밖에도 다양한 예가 있으며, 고려시대에는 이전시대부터 사용되던 부분 장식의 대상범위를 넓혀 풍부하게 응용해나갔음을 알 수 있다.

### 3. 어자문 금속공예품의 특징과 의의

고려시대에 어자문기법은 이전시대까지 볼 수 없었던 수준 높은 기술로 다종다양한 금속 공예품에 시문되면서 11세기에서 12세기에 절정을 이루었다. 이러한 발전배경에는 고려전기 관장의 제도화와 함께 정비된 금속수공업의 체계적인 생산체제와, 11세기에 긴밀한 관계를 맺었던 요와의 대외교섭이 밀반침되었다. 고려 초에 통일신라 말의 경향을 이어 불교공예품을 중심

<sup>49</sup> 고려시대에 많이 남아있는 이러한 종류의 장신구는 항상 대칭모양으로 한 쌍을 이루고 있다. 용도는 霞帔 끝에 매다는 墜子로 제시된 바 있으며, 香囊의 기능도 겸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안귀숙, 앞의 글, 2004, pp. 185-186.)

<sup>50</sup> Shen, Hsueh man, *Gilded Splendor: Treasures of China's Liao Empire*(New York: Asia Society, 2006), p. 102, 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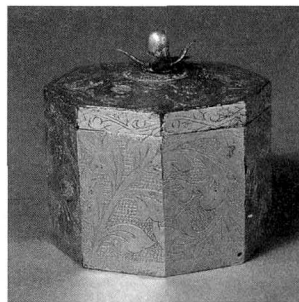
으로 제작되었던 어자문 금속공예품은 통일신라 공예기술의 전통을 계승하고, 요에서 새로운 유행을 받아들이고 확산시켜 기술적 진보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고려시대 어자문 금속공예품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먼저 극히 제한된 왕실 발원의 불교공예품이 주를 이루었던 통일신라시대에 비해, 화장용구와 장신구 등의 일상공예품이 훨씬 다양하게 제작되었다는 것이다. 어자문기법은 동시기에 발전한 여러 기법과 융합되어 거의 모든 기종을 망라해 응용범위를 넓혀갔으며, 장식유형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바탕 장식과 부분 장식으로 나눌 수 있다. 바탕 장식은 크게 선조기법 및 타출기법과 결합된 유형으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어자문기법의 시문수법에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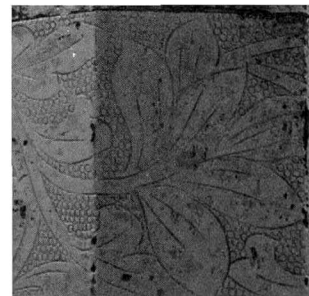
선조기법과 결합된 유형에서는 金銅製鉸具 등에 시문된 질서정연한 어자문기법을 볼 때, 더욱 경제적인 방법으로 多重釘이 고안되었을 가능성도 제시된다. 타출기법과 결합된 유형은 고려시대에 타출기법이 발달하면서 성행한 것으로, 뾰뾰한 고부조 타출기법과 식별하기 힘들 만큼 치밀한 어자문기법과의 조합은 고려시대 어자문 금속공예품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요에서는 긴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봉황이나 뛰어가는 동물의 모습 등 자유분방한 문양 구성이 많은 반면, 고려에서는 꽃이나 새 문양 등의 일정한 모티프가 보다 세련되고 정밀하게 구성되었다. 어자문 역시 공간에 여유를 두고 시문하여 시각적인 효과가 큰 요에 반해, 고려는 뾰뾰한 타출문양 사이를 빈틈없이 메워 금속의 광택효과를 강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고려는 고려만의 미감을 발휘하여 요에서도 볼 수 없는 독자적이고 우수한 특징을 이루었다고 생각된다.

어자문 금속공예품은 蒙古와의 전란(1231-1273)을 기점 삼아 그 이후로 현존유물이 현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고려후기에 들어서 元(1271-1368)의 지배와 수탈 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은 전반적으로 금속공예품의 생산이 침체되는 현상을 가져왔다. 일부 소규모로 제작되는 작품에 있어서도 금속원료의 부족과 所의 해체, 그리고 匠人사회의 급격한 붕괴 등에 의해 기술적인 면에서 질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sup>51</sup>

어자문 금속공예품의



도 27 <至治3년명 金銅製八角舍利盒>, 1323년, 高 7.5cm, 일본 高麗美術館



도 27-1 몸체 세부

제작은 이미 明宗代의 금은기 禁制 이후 저조해지기 시작하였다고 여겨지며, 사리기와 금강령 등의 일부 불교공예품에서 그 명맥을 유지하였다. 고려 후기 사리기에 시문된 어자문기법을 볼 수 있는 드문 예로서, 일본 高麗美術館 소장 <至治3年銘 金銅製八角舍利盒>(도 27)이 있다. 사리합의 뚜껑과 몸체에는 커다란 입을 가진 당초문을 선각하였고 어자문기법으로 정밀하게 바탕을 채웠다(도 27-1). 밑바닥에는 “至治三年十月日 德山施主造”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어 1323년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도 28 (左) <靑銅製梵·釋四天王五鈷鈴>, 14세기, 高 20.1cm, 口徑 6.5cm, 국립중앙박물관  
도 28-1 (右) 몸체 세부

관 소장 <靑銅製梵·釋四天王五鈷鈴>(도 28)은 五鈷鈴에 六花形 몸체를 가진 형태로, 제석·범천상과 사천왕상 여섯 구를 배치한 후 여백에 어자문을 시문하였다. 어자문은 제대로 찍히지 않은 비늘 형태가 많고 아예 찍히지 않은 부분도 있다(도 28-1). 금강령은 고려 후기에 대내외적으로 사회가 불안해지자 現世적인 祈福을 위한 儀式 중심의 불교, 즉 원의 지배 아래 유입된 密敎가 신앙되면서 집중적으로 제작되었다.

고려 후기에 불교미술을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중심세력은 왕실과 귀족층이었기 때문에 어자문기법은 사리기나 금강령과 같이, 불교의식에서 신성한 의식법구로 사용되는 불교공예품에 지속되었다고 판단된다. 어자문기법은 조선전기까지 그다지 보이지 않다가 17세기 이후 조선 후기에 성행하였는데, 화장용구와 장신구뿐 아니라 담배합, 가구의 경첩장식, 자물쇠·열쇠 등에 치밀하게 장식되었다.<sup>52</sup> 조선 후기에 대중적으로 저변화되어 다시 활성화된 배경에는 明·淸代와의 영향관계에 따른 또 다른 유형의 계기가 있었을 것이라 짐작된다. 이처럼 어자문기법은 삼국시대에 유입되어 현재까지도 전통을 이어 장식되고 있는, 실로 유구한 역사를 지닌 기법이라고 하겠다.

51 崔應天, 「고려시대 金屬工藝의 匠人」, 『美術史學研究』 241(2004. 3), pp. 179-181.

52 조선 후기의 대표작으로 효종의 딸인 숙신공주의 묘에서 출토된 화장용기(1650년 경)와 정조의 후궁 원빈홍씨의 묘에서 출토된 화장용기(1779년 경)를 들 수 있다. 이 유물들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금속공예실에서 전시 중이다.

## IV. 맺음말

이 논문은 고대 서방에서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전래된 어자문기법이 어떻게 전개되어 고려시대에 크게 유행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본래 기원전부터 금속기의 부분 장식으로 이용되던 어자문기법은 唐代에 바탕 장식으로 성행하였고, 통일신라시대에 당과의 교섭을 통해 새로운 장식기법으로 정착되었다. 기존에 어자문기법의 성행 시기는 통일신라시대로 알려져 왔으나, 고려시대에 수요층이 확산되면서 훨씬 우수한 솜씨로 다양한 기종에 유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써 고려시대에 발전한 線彫·入絲·打出기법 등 각종 장식기법에 더해 어자문기법이 고려의 중요한 금속공예기법의 하나로 자리매김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었다.

고려시대 어자문 금속공예품이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고려전기에 완비된 관영수공업의 체계적인 생산체제와 11세기를 전후하여 그 어느 때보다 긴밀했던 요와의 교류에 집중하여 살펴보았다. 고려는 삼국·통일신라의 공예문화를 바탕으로, 당을 이어 어자문기법이 성행한 요와의 관계 속에서 11세기 전반을 기점 삼아 한층 수준 높은 단계로 끌어올렸으며, 11세기 후반 이후에는 성숙기에 달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고부조 타출기법과 결합된 어자문기법은 육안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치밀하게 시문되어, 타출된 표면의 울퉁불퉁한 굴곡과 요철의 차이에 따라 난반사와 광택효과를 강하게 발휘하였다.

이상과 같이, 고려시대 어자문 금속공예품은 중국의 영향을 받았으나 숙련된 기술력으로 고려만의 미감을 발휘하여 11세기에서 12세기에 가장 뛰어난 수준을 이루었다.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집중 받지 못했던 고려시대 어자문 금속공예품의 우수성과 독자성을 밝혀, 화려하고 독창적인 고려의 귀족문화와 금속공예의 일면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현재 고려시대 어자문 금속공예품은 제작지나 제작시기를 알 수 있는 명문 등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구체적인 시기 추정에 어려움이 있다. 앞으로 공예품의 시대적인 배경과 제작환경에 관한 심도있는 연구, 동시기 다른 공예품과의 지속적인 비교 연구와 새로운 유물의 발굴 등을 통해 더욱 진전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제어(key words) \_ 어자문기법(魚子技法, Ring-matting technique), 어자문(魚子文, Ring-matted patterns/ Fish-roe patterns), 금속공예품(金屬工藝品, Metal artifacts), 지문 장식(地文裝飾, Background decoration), 고려(高麗, Goryeo), 요(遼, Liao)

## 참고문헌

### 1. 史料

『三國史記』  
『訓要十條』  
『高麗史』  
『宣和奉使高麗圖經』  
『宋史』  
『遼史』

### 2. 國文

#### 〈圖錄〉

국립부여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 1987.  
국립문화재연구소, 『감은사지 동삼층석탑 사리장엄』, 2000.  
\_\_\_\_\_, 『미국 보스턴미술관 소장 한국문화재』, 2004.  
\_\_\_\_\_, 『일본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오구라 컬렉션 한국문화재』, 2005.  
국립중앙박물관, 『하치우마 타다수선생 기증유물 특별전』, 1995.  
\_\_\_\_\_, 『북녘의 문화유산』, 2006.  
\_\_\_\_\_, 『영원한 생명의 올림 통일신라 조각』, 2009.  
국립청주박물관, 『국립청주박물관』, 1987.  
디 아모레 뮤지엄, 『디 아모레 뮤지엄 소장품 도록』, 2005.  
삼성미술관 Leeum, 『삼성미술관 소장품 선집 고미술』, 2004.  
상명대학교박물관, 『천년을 이어온 우리공예이야기』, 2005.  
용인대학교박물관, 『佛法으로 피어난 금속공예: 고려시대 佛具』, 2006.  
월정사성보박물관, 『월정사성보박물관도록』, 2002.  
朝鮮總督府 編, 『朝鮮古蹟圖報』第9冊, 東京: 出版科學總合研究所, 1982.  
호암갤러리, 『大高麗國寶展』, 삼성문화재단, 1995.

## 〈著書〉

-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조각장』, 피아, 2005.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용어: 미술사』, 2006.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15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1995.
- 金渭顯, 『遼金史研究』, 裕豊出版社, 1996(1985 初版).
- 朴玉杰, 『高麗時代の歸化人研究』, 國學資料院, 1996.
- 李蘭映, 『韓國古代金屬工藝研究』, 一志社, 1992.
- \_\_\_\_\_, 『한국 고대의 금속공예』,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 주경미, 『중국 고대 불사리장엄 연구』, 일지사, 2003.
- 최응천·김연수, 『(한국美的 재발견 8) 금속공예』, 솔, 2004.

## 〈論文〉

- 加島勝, 「武寧王陵金工品과 法隆寺獻納寶物」, 『武寧王陵과 東亞細亞文化』,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국립공주박물관, 2001, pp. 219-227.
- 康賢禎, 「高麗時代 金銀工藝의 研究 -金屬製 護符容器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2.
- 金恩愛, 「고려시대 타출공예 연구」, 『美術史學研究』 253, 한국미술사학회, 2007. 3, pp. 31-72.
- 金珉靜, 「高麗時代 金銀器 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6.
- 金炫榮, 「고려시기의 所에 대한 재검토」, 『韓國史論』 15,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86, pp. 95-128.
- 박순발, 「漢城期 百濟 對中交涉 一例-夢村土城 出土 金銅鈔帶金具 追考-」, 『湖西考古學』 11, 호서고고학회, 2004, pp. 5-15.
- 朴玉杰, 「高麗의 歸化人 同化策-특히 居住地와 歸化 姓氏의 歸郷을 중심으로」, 『江原史學』 17 · 18, 강원대학교 사학회, 2002, pp. 87-106.
- 朴漢男, 「高麗의 對金外交政策 研究」,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3.
- 徐聖鎬, 「高麗前期 手工業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7.
- 안귀숙, 「高麗時代 金屬工藝 對中交涉」, 『高麗 美術의 對外交渉』, 예경, 2004, pp. 153-192.
- \_\_\_\_\_, 「고려 佛具의 의미와 제작기법 -宇鶴文化財團 소장품을 중심으로-」, 『佛法으로 피어난 금속공예: 고려시대 佛具』, 용인대학교박물관, 2006, pp. 123-145.
- \_\_\_\_\_, 「고려 금속공예에 보이는 遼文化의 영향」, 『이화사학연구』 40, 2010, pp. 119-161.
- 李蘭映, 「魚子文技法」, 『震檀學報』 71 · 72, 震檀學會, 1991, pp. 187-209.
-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학술발표자료집: 대발견! 사리장엄 彌勒寺의 再照明』, 2009. 4.
- 이정희, 「고려전기 對遼貿易」, 『지역과 역사』 4, 부산경남역사연구소, 1997. 12, pp. 5-52.

- 임지윤, 「高麗時代 魚子文工藝品 研究」, 흥익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7.
- 田炳武, 「高麗時代 銀流通과 銀所」, 『韓國史研究』78, 한국사연구회, 1992, pp. 69-106.
- 조성현, 「고려시대 여지문 과대 연구」, 『삼성미술관 Leeum 연구논문집』2, 삼성문화재단, 2006, pp. 11-28.
- 주경미, 「통일신라시대의 金工技法 研究-佛舍利莊嚴具를 중심으로-」, 『新羅文化祭學術論文集』24, 新羅文化宣揚會, 2003, pp. 262-303.
- \_\_\_\_\_, 「몽골 출토 흉노시대 금속공예품 연구」, 『新羅文化』37,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11.2, pp. 179-219.
- 친대수(秦大樹), 김영미 역, 「宋·金代 북방지역 瓷器의 象嵌工藝와 高麗 象嵌 靑瓷의 關係」, 『美術史論壇』7, 한국미술연구소, 1998, pp. 45-76.
- 崔應天, 「高麗時代 打出技法 工藝品 四例」, 『박물관신문』225, 국립중앙박물관, 1990. 5. 1.
- \_\_\_\_\_, 「高麗後期の 金屬工藝」, 『講座美術史』22, 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04, pp. 125-155.
- \_\_\_\_\_, 「고려시대 金屬工藝의 匠人」, 『美術史學研究』241, 한국미술사학회, 2004. 3, pp. 171-192.
- 한정호, 「益山 王宮理 五層石塔 舍利莊嚴具의 編年 再檢討: 金製舍利內盒을 중심으로」, 『불교미술사학』3, 불교미술사학회, 2005, pp. 32-52.
- \_\_\_\_\_, 「高麗 靖宗 4년 〈佛國寺西石塔重修形止記〉와 석가탑 사리장엄구」, 『新羅文化』32, 2008.8, pp. 39-65.
- \_\_\_\_\_, 「〈佛國寺无垢淨光塔重修記〉와 小倉걸렉션 傳 경주 남산출토 사리장엄구」, 『美術史論壇』3, 한국미술연구소, 2008. 12, pp. 39-65.

### 3. 日文

#### 〈圖錄〉

- ロベール・シュリユ 著, 中近東美術研究會 譯, 『秘の美術 ベルシス』, 東京: 大陸書房, 1982.
- 高麗美術館 編, 『高麗美術館藏品圖錄』, 東京: 高麗美術館, 2003.
- 大阪市立美術館, 『白と黒の競演-中國·磁州窯系陶器の世界-』, 2002.
- 大和文華館 編, 『特別展]中國の金銅佛』, 奈良: 大和文華館, 1992.
- 曾布川寛·谷豊信 主編, 『世界美術大全集』東洋編2 秦·漢, 東京: 小學館, 1998.
- 岡田健·曾布川寛 主編, 『世界美術大全集』東洋編3 三國·南北朝, 東京: 小學館, 2000.
- 百橋明穂·中野徹 主編, 『世界美術大全集』東洋編4 隋·唐, 東京: 小學館, 1997.
- 小川充·弓場紀知 主編, 『世界美術大全集』東洋編5 五代·北宋·遼·西夏, 東京: 小學館, 1998.

#### 〈著書〉

- 香取正彦 外, 『金工の傳統技法』, 東京: 理工學社, 2006(1986 初版).

福山敏男,『日本建築史の研究』,京都: 桑名文星堂, 1943.

#### 〈論文〉

中野政樹,「日本の魚々子—受容と展開」,『Museum』393, 1982. 12, pp. 4-16.

東野治之,「魚子打ちの技術」,『正倉院』,東京: 岩波書店, 1992, pp. 74-78.

野間清六,「日本上代の工匠に就いて(下)」,『國華』640, 1944. 3, pp. 82-86.

山中理,「古代中国のデザイン ⑥ 唐代銀器—蹴彫と魚々子の技の彼方に広がる世界—(上)」,『日本美術工芸』, 1991. 6, pp. 54-61.

江上 綏,「魚子地—東亞文様・意匠の源流と展開 9—」,『日本美術工芸』420, 1973. 9, pp. 88-92.

八波浩一,「遼時代の金銀器についての一考察—シルクロードの寶物展出品作品より」,『出光美術館研究紀要』 7, 2001, pp. 179-201.

長谷部樂爾,「磁州窯・河南天目」,『世界陶磁全集』12 宋, 東京: 小學館, 1977, pp. 230-246.

#### 4. 中文

##### 〈圖錄〉

陝西歷史博物館,『花無大唐春—何家村遺寶精粹』,北京: 文物出版社, 2002.

成都市文物考古研究所·彭州市博物館,『四川彭州宋代金銀器窖藏』,北京: 科學出版社, 2003.

楊伯達 主編,『中國金銀玻璃瑠璃器全集』金銀器 1, 石家莊市: 河北美術出版社, 2004.

——,『中國金銀玻璃瑠璃器全集』金銀器 2, 石家莊市: 河北美術出版社, 2004.

于建設 主編,『赤峰金銀器』,呼和浩特: 遠方出版社, 2006.

張景明,『中國北方草原古代金銀器』,北京: 文物出版社, 2005.

中國美術全集編輯委員會 編,『中國美術全集』工藝美術編 10 金銀琉璃瑠璃器, 北京: 文物出版社, 1988.

##### 〈著書〉

齊東方,『唐代金銀器研究』,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9.

朱天舒,『遼代金銀器』,東京: 文物出版社, 1998.

##### 〈論文〉

靳楓毅,「遼寧朝陽前窓戶村遼墓」,『文物』1980年 第12期, pp. 26-27.

張景明,「遼代金銀器的特征及造型藝術」,『大連大學學報』2006年 第1期, pp. 65-70.

齊東方,「何家村遺寶与粟特文化」,『粟特人在中國』,北京: 中華書局, 2005, pp. 375-389.

周軍·劉彥鋒,「珍珠地劃花淺析」,『考古』1995年 第6期, pp. 564-571.

韓光輝, 「遼代中國北方人口的遷移及其社會影響」, 『北方文物』1989年 第2期, pp. 72-79.

韓偉, 「遼代太平年間金銀器 文考釋(上)」, 『月刊古宮文物』129, 1993, pp. 4-23.

\_\_\_\_\_, 「遼代太平年間金銀器 文考釋(下)」, 『月刊古宮文物』130, 1994, pp. 100-107.

## 5. 英文

### 〈圖錄〉

Kim, Kumja Paik, *Goryeo Dynasty: Korea's Age of Enlightenment 918-1392*, San Francisco: Asian Art Museum, 2003.

Shen, Hsueh man, *Gilded Splendor: Treasures of China's Liao Empire(907-1125)*, New York: Asia Society, 2006.

### 〈論文〉

Bo, Gyllensvrd, "T'ang Gold and Silver", *The Museum of Far Eastern Antiquities Bulletin* No. 29, Stockholm, 1957, pp. 1-195.

Chase, W. T., "The Technical Examination of Two Sasanian Silver Plates", *Ars Orientalis* Vol. 7, Berlin: Bruder Hartmann, 1968, pp. 75-93.

Louis, Francois, "Shaping Symbols of Privilege: Precious Metals and the Early Liao Aristocracy", *Journal of Song Yuan Studies* Vol. 33,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Albany, Dept. of East Asian Studies, 2003, pp. 71-109.

Mino, Yutaka, "T'z'u-chou-Type Ware Decorated with Incised Patterns on a Stamped 'Fish-Roe' Ground", *Archives of Asian Art* Vol. 32, New York: Asia Society, 1979, pp. 55-71.

## 국문초록

魚子文기법은 금속표면에 끝부분이 둥글게 움푹 파인 釘을 망치로 두드려 작은 음각 圓文을 표현하는 금속공예기법이다. 이 기법은 기원전부터 고대 서아시아 등에서 보이기 시작하여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전래되었다. 어자문기법은 7세기 이전까지 금속기의 부분 장식으로 이용되다가 唐代 金銀器에서 주문양을 돋보이게 하는 바탕 장식[地文]으로 성행하였다. '魚子'는 작은 원문을 수없이 늘어놓은 모습이 물고기 알처럼 보인다 하여 붙여진 명칭으로, 일본 正倉院文書의 기록(760)에 근거하여 현재 보편적으로 불리고 있다.

어자문기법은 삼국시대에 문양의 일부, 또는 테두리를 장식하는 연주문 형태로 고급 威勢品과 金銅小形佛 등에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바탕 장식으로 사용된 시기는 唐과 활발한 교섭을 하였던 7세기 전반 경으로, 왕실사찰에서 출토된 舍利器에서 정착되어 가는 초기단계를 볼 수 있다. 통일신라시대에 어자문은 경주를 중심으로 제작된 불교공예품과 일부 장식품에 본격적으로 시문되었다.

고려시대에 어자문기법은 삼국·통일신라 공예기술의 전통을 기반으로 北宋·遼 등과의 대외교섭을 통해 11세기에서 12세기에 전성기를 이루었다. 특히 11세기에 요와의 밀접한 관계는 어자문 금속공예품의 제작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고려전기에 官匠의 제도화를 토대로 한 官營手工業의 체계적인 생산체제는 어자문 금속공예품의 발전에 큰 원동력이 되었을 것이다. 고려시대 어자문 금속공예품은 왕실과 귀족층 등으로 수요가 확산되면서 기명류·화장용구·장신구 등의 일상공예품에 폭넓게 제작되었다. 어자문기법은 대표적인 주문양 기법인 線彫기법과 打出기법 등과의 결합에 따라서 시문수법에 영향을 받는다. 선조기법과 함께 장식된 어자문기법은 선조기법과 대등하게 음각된 원문 하나하나가 육안으로 분명하게 확인된다. 어자문기법의 유형은 성기거나 불규칙적인 유형과 치밀하고 정연한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통일신라 말의 경향을 이어 제작된 고려 초의 불교공예품에서 자주 보이며, 후자는 화장용구와 장신구 등이 해당된다. 高浮彫 타출기법과 결합된 어자문기법은 뾰뾰하게 타출한 꽃문양의 사이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깨알 같이 시문되었다. 어자문은 凹凸의 차이에 따른 빛의 반사와 광택효과로 금속질감에 변화를 주어, 화려함을 더하고 주문양의 입체감을 더욱 강조하였다. 이처럼 금속공예품의 全面을 가득 채운 고부조 타출기법과 질서정연하고 빈틈없는 어자문기법의 조합은, 요대 금은기에서도 볼 수 없는 고려만의 독자적인 특징으로서 늦어도 12세기를 下限으로 성행하였다고 생각된다.

본 논문은 고려시대 어자문기법 연구의 始發點으로서, 한국에 전래된 어자문기법의 전개과정과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고려시대 어자문 금속공예품의 우수성과 독자성을 살펴보는 데 의의가 있다.

## Abstract

# Goryeo Ring-Matted Metal Artifacts

**Yim Jiyun \***

The ring-matting technique is a metalworking technique consisting in hammering a burin with a hollow round head onto the surface of a metal item to create small ring-matted patterns in intaglio. This technique was used since before the beginning of the Common Era, and was brought from ancient West Asia to China, then to the Korean peninsula. Ring-matting was used until the early 7<sup>th</sup> century, only in small areas of a metal item. Since then, the technique had come to be popularly used in Tang China, to create background patterns in gold and silver items. The 'Eoja(魚子)' means literally 'fish roe' for ring-matted patterns, as the small round circles densely gathered together are reminiscent indeed of fish roes. This name, appearing in a record held in Japan's Shosoin (760), is currently in use also in China and Japan.

Ring-matted patterns first appeared in the Korean peninsula, during the Three Kingdoms period, in small areas of an item or as a bead band at the edges of an item. Initially, they were mostly seen on prestige items and small gilt-bronze Buddhist sculptures. The ring-matting technique was later used to create background patterns from the early 7<sup>th</sup> century when there was active artistic interaction between the Three Kingdoms and Tang China. Early examples of ring-matted background patterns are seen in sarira reliquary items, discovered in Buddhist temples protected by the royal house. During the Unified

---

\*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Curator

Silla period, the ring-matting was popularly used for decorating Buddhist craft items and some other ornamental items. Meanwhile, we know from the Shosoin record of ring-matting artisans during Nara-period who specialized in ring-matting active but also seemed to be highly considered in the Unified Silla.

The Three Kingdoms-period and Unified Silla technique of ring-matting was transmitted to the ensuing period of the Goryeo, and reached its heyday in the 11<sup>th</sup> to 12<sup>th</sup> century, helped by the exchange with the Northern Song and Liao. The close ties formed with the state of Liao in the 11<sup>th</sup> century appear to have had a particularly important influence on the production of ring-matted metal craft items in the Goryeo. Meanwhile, the government artisan system, put into place in the early Goryeo, enabled a more systemic production of craft items; another major contributing factor to the thriving of ring-matted metal crafts. As the demand for ring-matted metal items grew in the royal house and among aristocrats, this metalworking technique was now applied to everyday items like vessels, grooming tools, and accessories.

The ring-matting technique was later coupled with other major metalworking techniques such as chasing and repoussé. When the ring-matting technique is used together with chasing, each of the ring patterns in intaglio is clearly cut, as distinct as the grooves created through chasing. There are two types of ring-matted patterns: sparse and irregular patterns and densely-gathered and regularly-shaped patterns. Patterns of the former type are mainly seen in late Unified-Silla metal items and also quite frequently employed in early-Goryeo Buddhist craft items. Patterns of the latter type, meanwhile, are often seen in grooming tools and accessories. Ring-matted patterns, when coupled with high-relief repoussé patterns, look like tiny granules, densely filling the spaces between repoussé floral patterns. Concave and convex ring-matted patterns reflect light in different manners. The lustrous effect produced by ring-matting helps create variation in the texture of a metal item, while adding brilliance to the overall surface design and depth to main motifs. Metal items with high-relief repousse patterns and even ring-matted patterns covering the background completely were only produced in the Goryeo period and uniquely characterize Goryeo metalwork. Such combination was not seen, for instance, in gold and silver items of the Liao state. The popularity of the combination of ring-matting and repoussé methods appears to

have begun no later than in the 12<sup>th</sup> century.

This study, as an early attempt to cast light onto the ring-matting technique of the Goryeo, is significant in that it reconstructs the timeline of the development of ring-matting technique in the Korean peninsula and draws attention to the beauty and originality of Goryeo ring-matted metal craft items, which have thus far been undeservedly neglected by the research community.